



[산업] 조원태 vs 땅콩연합 한진칼 경영권 분쟁 06



Economy

코스피	2054.89 (-21.88)	코스닥	638.17 (-16.46)
금리 (연고채 3년)	1.19 (+0.06)	환율 (원/달러)	1217.20 (+0.30) (27일)

# CB, 잔치는 끝났다 2조 만기 '상폐경보'

# 한줄기 빛... 코로나 치료제 임상3상

## 코스닥 흑역사

(下) 메자닌 만기폭탄

만기도래 주식사채 2.4조원 전환사채가 80% 이상 달해 기업들 전환가액 낮추기도

코스닥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주가는 도리어 하락하고 있어 원금 상환부담이 커진 탓이다.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감사인들도 관련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관련 사모채권 규모는 2조4417억원이다. 주로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CB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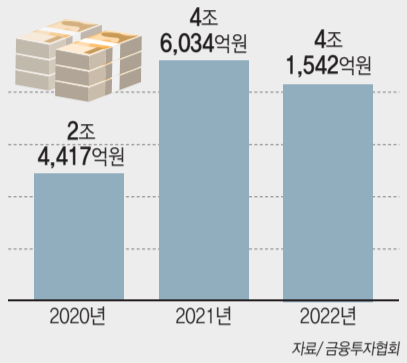
### ◆주가 하락에 CB 상환 '찢찢'

코스닥 기업의 CB 발행은 매년 늘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명분으로 CB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라임자산운용사와 같은 사모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가 시장에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의 CB를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통상 CB의 만기는 2~3년이다. 때문에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 2022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시장에 쏟아졌다. 오는 2021년에는 4조6034억원, 2022년에는 4조1542억원의 주식 관련 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CB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 주식 관련 사채 만기 도래액



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투자자는 보유 사채를 추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다만 주가가 오를 때 이야기다.

요즘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유인이 크지 않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자까지 붙여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실제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CB를 발행해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으로부터 610억원 어치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10월 YG엔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과 이자 674억원을 보유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후 경영난에 몰린 YG엔터는 계열사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환급할 현금이 없는 기업들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낮추기도 한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주가가 급락한 에스모는 지난 10월 전환가액을 6300원에서 2325원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 24일에는 전환가액이 1238원까지 낮아졌다. (5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코로나 확진자 1800명 육박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만에 505명 급증했다. 총 확진자는 1766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오후 4시 집계보다 334명 늘었다고 밝혔다. 오후 들어서는 17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제까지 최고 증가폭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이날 대구 지역에 422명이 집중됐다. 대구 지역 누적 환자는 113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1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대기 중이던 74세 남성이 숨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방역당국은 맥박, 연령, 기저질환 여부 등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환자 사례별 중증도와 고위험 요인을 확인해 우선 입원조치하겠다"며 "시도 단위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의료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대구 신천지 교인과 이외 지역 신도, 접촉자들의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통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내일 이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반영될 것이며 양성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코로나19 관련기사> 2~5, L3, L6~L7면

美 길리어드, 한국 등 대상 에볼라 치료 물질로 임상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이 시작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 후보물질 '렘데시비르'에 대한 두건의 임상 3상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3일 부터 1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그 외 코로나19 진단 사례가 많은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약 1000명의 환자를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

길리어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시험계획(IND) 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황이 위중한 만큼 통상 30일 가량 걸리는 IND 승인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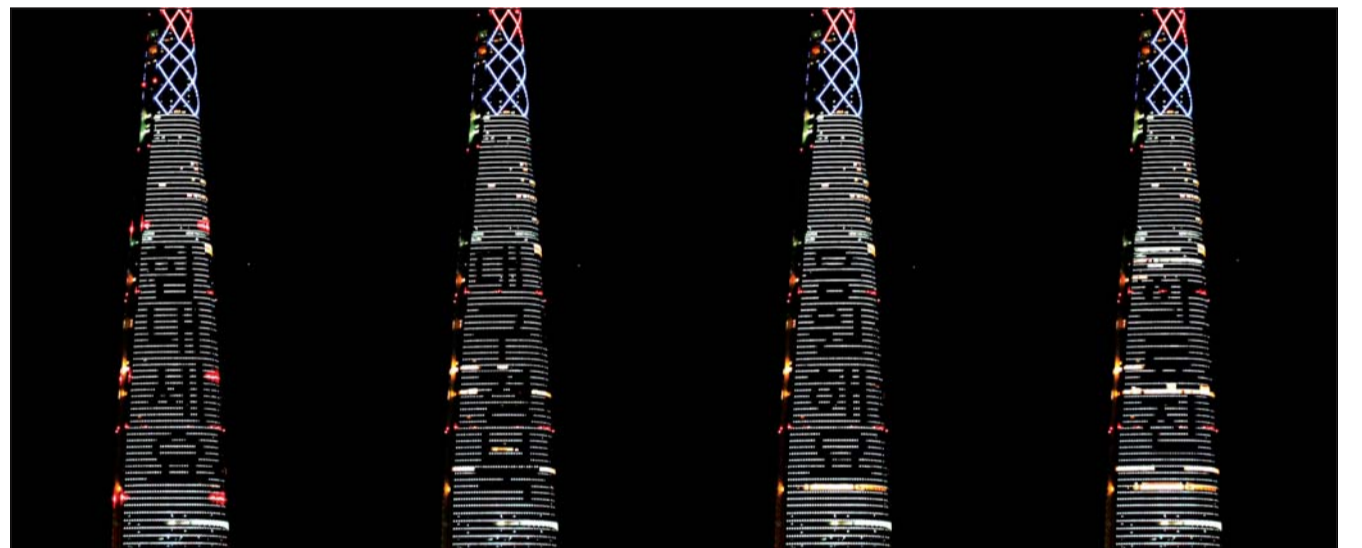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중이던 후보물질로, 임상 2상 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렘데시비르에 대해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가장 믿을 만한 치료제 후보"라고 밝힌 바 있다.

길리어드는 이번 임상3상에서 렘데시비르의 각기 다른 두 가지 투여기간을 평가한다.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임상 양상이 중증인 코로나19 환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5일 또는 10일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는 중증증의 코로나19 환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5일 투여군, 10일 투여군, 또는 표준 치료제 단독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할 예정이다. 두 임상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임상적 호전으로 동일하다.

길리어드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2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NIAID)를 통해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임상연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기자 seilee@



힘내세요 대구·경북, 응원해요 의료진

롯데월드타워가 27일부터 건물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오후 7~11시 매시 정각과 30분에 10분간 '힘내세요 대구·경북', '힘내자! 대한민국', '응원해요 의료진!' 등 응원 메시지가 타워 외벽에 연출된다.

/연합뉴스

# '신중론' 택한 韓銀, 기준금리 1.25% 동결

'코로나19' 충격 좀 더 지켜보기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 증액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일단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렸고, 같은 해 10월 연 1.25%로 한 차례 더 내린 후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금리인하론이 급부상했다. 그럼에도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 섰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자보다는 감염요인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금리조정보다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

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정책 대신 피해기업에 타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용정책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이번 금리동결은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효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 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안정이라는 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하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대응 여력에 대해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외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함내라! 대구·경북

# 격려·구호물품 줄이어... 피해 돕기 '한마음 한뜻'

“확산 방지위해 일사불란하게 힘 모아야”

“어렵고 힘든상황, 슬기로운 극복에 최선”

재계

재계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GS그룹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허태수 GS 회장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GS는 특히, 대구 경북지역 재난 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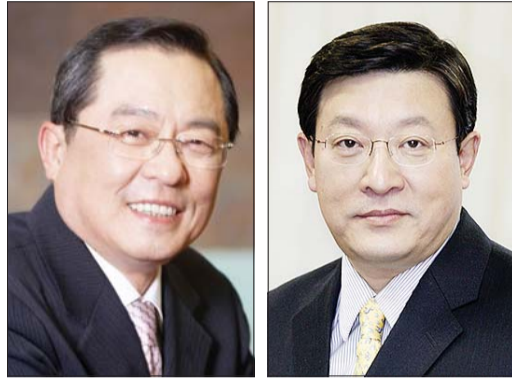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19'의 조속한 종결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효성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과 의료용품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지역에 의료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 임직원들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LS그룹 역시 같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구자열 LS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을 기탁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과 의료 물품,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이번 감염증으로 직·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취약 계층도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윤·김재웅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권

은행들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7일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성금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을 위한 실질적 물품지원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진의 의료용품과 방호복, 마스크 등의 기본 물품은 물론 의료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의료진 건강식 품키트를 포함한 구호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금융티아이 등 관계사들도 이번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이다.

하나은행은 대구·경북지역의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음식점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납입한 출연금 외에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19 피해기업특별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오경근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7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방역, 신선식품 폐기액 지원... 마스크·생필품 전달 등 '온정의 손길'

유통가

CJ그룹, 재해구호협회에 10억 기부 현대백·신세계그룹도 긴급지원 나서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가맹점 휴점 등 피해복구 물심양면

명륜당, 522개 가맹점 월세 지원 더벤티, 430개 가맹점 로열티 면제



25일 동아오츠카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혈액 수급난을 지원하기 위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제너시스BBQ그룹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대구·경북지역 패밀리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제너시스BBQ

유통업체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 등으로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통채널에서부터 프랜차이즈업체까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 그룹사도 피해 복구 팔 걷어붙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코로나19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격

리환자·취약계층 식사를 위해 햇반컵밥 등 가정간편식 1만5000개와 마스크·향균물티슈 1만 개 등을 전달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

억 원의 성금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 인력과 소외 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또한대구·경북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1억 원 규모 위생 용품을 긴급 지원한다.

◆ 편의점 본사, 가맹점주 위한 대책 마련 BGF리테일·GS리테일·세븐일레븐·이마트24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점한 점포를 대상으로 신선식품 폐기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CU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의심자

수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 대한 본사가 전액 부담해 민간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세븐일레븐은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대구 및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확보한 마스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GS리테일은 휴점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휴점 점포를 위한 판촉 예산도 편성했다.

이마트24는 방역 후 휴점기간이들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상품 결제대금 조기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 '방역'부터 '월세'까지 지원

명륜진사갈비 본사명륜당은 최근 전국 522개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23억원에 달하는 한 달 월세 전액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에서는 가맹점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6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더벤티는 전국 43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월 로열티 전액을 면제하는 한편 물류비용의 10%를 인하한다. 더벤티는 각 가맹점의 피해 규모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3월 내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맘스터치는 전국 가맹점을 확진·심각·주의 등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확진'으로 분류해 자발적 휴점과 추가 방역을 진행하고 매출 피해를 위로하는 차원으로 소정의 격려금 및 물품 대금을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kmj@



# 배송확대·가격할인... 대형마트, 생필품 공급 '안간힘'

## 신세계그룹

'쓱배송' 처리물량 지역별 20% 확대

## 홈플러스

30개 품목, 국민상품 지정 할인

## 롯데마트

신선·가공식품 등 가격 할인 진행



SSG닷컴 네오003에 주차된 쓱배송 차량



/신세계그룹 홈플러스 생필품 할인행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쇼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몰은 배송이 마비되고, 생필품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는 생필품 공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SSG닷컴은 '쓱배송' 처리물량을 기존 대비 지역별로 최대 20%까지 늘렸으며, 특히 온라인스토어 네오(NEO)에서 출발하는 서울·경기지역 대상 새벽배송도 기존 대비 50%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주말 이후 SSG닷컴의 전국 평균 주문 마감률은 99.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쓱배송 마감율은 전국 평균 80%선임을 감안하면 거의 20%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SSG닷컴은 전국적으로 배송차량을 60대 이상 늘리는 한편, P.P센터 인력도 단기적으로 증원해 처리 가능한

물량을 기존보다 최대 20% 더 늘려 하루 약 6만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홈플러스 역시 온라인 주문이 몰렸다. 20일부터 26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 매출은 전년 대비 162% 늘고, 일평균 2만3000명 이상 신규 고객이 유입되면서 2월 신규 고객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장바구니도 무거워졌다. 평균 객단가가 20%나 오르며 평소보다 많은 양을 쟁여 두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온라인몰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배송 대란이 절정에 이르자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27일부터 3월4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생활용품 등 생활필수품 30여개를 국민가격 상품으로 선정하고 최대 40% 할인,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대표 상품으로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삼겹살·목심(100g)' 270톤 물량을 토·일·월·화(2월29일~3월3일) 4일간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IBK기업·씨티·SC카드) 결제시 정상가 1400원에서 30% 할인한 980원에 판매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대표 생필품인 쌀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의성 일품현미·일품쌀(4kg·10kg)' 총 14만포를 각 8980원·2만1900원에 판매한다.

가공·생활용품은 김치·통조림·세탁제 등 각 분류별 대표 품목들을 선정해 총 20여개 상품을 가격할인뿐 아니라 1+1, 2입 기획상품 등으로 준비했다. 이밖에, 소시지·고추장·삼푸·바디워시·치약·칫솔 등 다양한 생필

품을 1+1 행사상품으로 4900~2만7500원에 준비해 가계살림 절약에 힘을 보탠다.

홈플러스는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라는 타이틀을 건 할인행사를 3월 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진 식재료 관련 용품도 저렴하게 판다. 천년의 솜씨 신동진 쌀(20kg·포) 4만9900원, 오투기밥(210g\*24입) 1만7980원, 농심 육개장 사발면(86g\*6입) 3480원, 광천김 기획(총 40봉) 8990원, CJ 스펀 클래식+스펀 마일드(250\*5입+200g) 1만3880원, CJ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3.3kg·팩)는 2만3900원이다.

롯데마트도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4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오투기 굴 진짬뽕'을 기존 판매가보다 50% 가량 할인된 2740원에, '폴무원 구리 소고기죽'을 기존 판매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인 3180원에 선보인다.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신한카드 결제하면 '냉동밥' 전품목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 할인된 금액에, '오투기·대상 카레&짜장' 전품목을 기존 판매가보다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특수'도 매출 증가에 한몫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뷔페 대신 보양식·프라이빗룸 체크... 달라진 호캉스

코로나여파로 음식공유 우려 커져 마늘·버섯 등 면역력 강화메뉴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최근 '호캉스(호텔+바캉스 합성어)'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 ◆뷔페 대신 별실의 중식당·일식당 인기

2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 뷔페 업장 매출이 평소 대비 30~35%가량 급감해 타격이 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러 사람이 음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용객들은 별실을 갖춘 레스토랑을 비롯해 프라이빗룸(별실)에서 즐기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뷔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라이빗룸을 갖춘 일부 레스토랑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 모두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일식, 중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 별실을 갖춘 호텔 식당 종류는 다양하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1층에는 13개 별실을 보유하고 있는 정통 일식 레스토랑 '하코네'가 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관계자는 "일식 레스토랑은 별실뿐 아니라 홀 좌석에도 모두 칸막이로 분리되어 프라이빗한 식사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발생 후 별실을 찾는 손님들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4개의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그랜드



호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성게알 불나물 비빔밥 한상을 선보였다. 해당 호텔에서는 면역력 회복에 좋은 메뉴로 꾸러진 '봄봄봄' 프로모션을 3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얏트 호텔의 식음업장 '소월로'도 최근 프라이빗룸을 찾아 졸업 입학 기념을 위해 모여든 가족단위 고객이나 커플들이 많이 찾고 있다.

### ◆딸기 뷔페 대신 면역력 강화 메뉴 출시

몇 년 새 딸기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호텔업계에서는 이른 봄인 2~3월부터 딸기 뷔페 프로모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호텔업계에서는 봄맞이 새 메뉴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을 출시하며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는 손님들을 끌어모은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신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메뉴로 구성된 '면역력 증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면역력 강화 대표 식품으로 알려진 마늘, 버섯, 호박, 시금치 등을 활용하여 한식인 당근 호박죽, 도다리 죽, 두릅과 낙지, 제철 쭈꾸미, 각종 불나물부터 버섯 리조토, 커리 크림 스파게티 등 기존 100여 가지 뷔페

메뉴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메뉴를 추가 구성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는 27일 봄맞이 제철 불나물 코스와 비빔밥 즐기는 '봄봄봄 프로모션'을 3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봄봄 프로모션'에서는 최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타민, 철분,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신선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특히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회복에 좋은 불나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몇 년 새 딸기 및 디저트 뷔페가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면서 2~3월부터 관련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디저트 뷔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대신 보양 음식을 비롯해 면역력을 올려주는 메뉴 등 건강식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 ◆여가는 프라이빗하게!



그랜드인터컨티넨탈의 일식당 하코네에는 13개의 별실이 있다. 기존에도 프라이빗룸을 보 호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이슈 이후 수요가 더욱 늘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문화센터나 운동모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반대로 부로 특급호텔의 프라이빗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플라워숍 '피오리'는 봄을 맞이하여 '봄맞이 플라워 클래스'를 3월 22일 진행한다. 해당 클래스는 프라이빗 룸에서 소규모로 진행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를 줄였으며 호텔 전문 플로리스트의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서울 남산에 있는 도심 속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객실 내 릴랙세이션 풀이 마련되어 있어 객실을 벗어나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호텔동 한 층에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객실만이 있어 감염자 접촉에 대한 우려도 적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내달 2일부터 우체국 마스크 판매

우분 1인당 5매 이내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내달 2일 오후부터 보건용 마스크 40만장을 판매하고, 이전에도 추가 물량이 확보되면 앞당겨 판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판매 관서는 대구·경도 지역과 공급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에 소재한 우체국이고,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 이내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피해지역 제휴점주 광고비, 포인트 환급"

야놀자 코로나 대응 상생책 발표

야놀자가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휴점주를 대상으로 상생 지원책을 발표했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경상북도 및 제주 지역에 위치한 모든 제휴점을 대상으로 3월 광고비를 전액 포인트로 돌려준다. 환급된 포인트는 오는 8월까지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은행도 회사도 비대면... 코로나19가 만든 '언택트환경'

4대銀 모바일뱅킹 거래 2774만건 대부분 비대면거래 수수료 안받기로 금융회사, 분산·원격근무 등 대책마련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금융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융 역시 대면을 꺼리면서 '언택트' 거래가 선호되고, 금융권 근무형태 역시 일부 지점 폐쇄를 넘어 비상시 비대면 체제로 갈 수도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은행 지점방문 NO...인터넷·모바일로 해결

코로나19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은행에서 사람을 접촉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언택트' 거래가 늘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주(2월 16~22일)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건수

는 2774만87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만건이 넘게 늘었다.

은행들도 비대면 거래 관련 수수료를 당분간 안받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은행 지점 직원들을 위해서도 비대면

거래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대구·경북지역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기로 했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를 다음 달 말까지 전액 면제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은행 내점 고객수는 확연히 줄었다. 대구·경북지역 은행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영업은 물론 일상 생활도 가능한 자

제하다 보니 대면을 비롯해 모든 금융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 ◆근무도 '언택트'...원격접속해 각자 집에서

향후 코로나19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일부 지점이 줄줄이 폐쇄조치되면서 금융사들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통신망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망분리하고,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까지 규제를 완화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이원화하고, IT부문과 자본시장본부는 분리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하고, 우리은행은 남산타워와 서울연수원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다. 하나은행도 대체사업장을 확대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전환가보다 시가 낮아도 CB 주식 전환

>> 1면 'CB, 잔치는 끝났다'서 계속

CB만기 도래... 상환 어려운 기업 있어 코스닥 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예상 부채비율 높아지면 상장폐지 가능성

한 코스닥기업 IP 담당자는 "전환가액을 계속 낮추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주주회사로서 이해가 상충한다"면서도 "상환을 제때 못해 상장폐지 당하는 것보단 전환가액을 낮추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기관투자자 상환 잇따라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전환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상태인데도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세차익은 커녕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는 최근 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CB를 담은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의 환매요

구가 쏟아지고 있어 운용사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만기까지 기다려도 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란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스모머티리얼즈는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당시 전환가액은 주당 3690원으로 CB투자자는 6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는 551원이다.

CB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라임자산운용은 현재 추심 전문 법무법인을 동원해 자산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사의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新)외감법의 영향으로 비적정 의

견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에 쌓인 CB도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회계법인은 CB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감사를 더 간간하게 본다. 만기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CB 발행금액을 모조리 부채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상장폐지 심사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CB는 일정부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 처리한다"면서 "주식 관련 사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모조리 부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CB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만기일이 돌아오는 코스닥 상장사 채권금액은 1조8978억원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8232억원이 한계 기업의 발행 물량으로 집계됐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

# 보험업, 코로나19 피해 소비자 위해 금융지원

생명·손보협, 위기 극복 지원방안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대출 원리금 납부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여기에 더해 계약대출이자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손보업계는 대출원리금 상환과 채권추심 등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관광이나 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보험 납입보

험료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이런 '공포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게 자정노력도 벌인다.

아울러 매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관련 자력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손해보협회는 다음달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집체교육도 연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시장에  
기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중진공 기업인력 애로센터

중소벤처기업 인력부족문제  
중진공이 해결해드립니다.

1. 상세정보 확인 2. 일자리 커리어 매칭 3. 면접/평가 4. 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KOSME 중소기업인력진흥공단

http://job.kosmes.or.kr ☎ 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란?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축한 중기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인선 One-stop 지원체계입니다.

####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구직 매칭 프로세스

**구인기업**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홈페이지)

구인조건 등록  
기업특성 반영

채용정보 게시  
체계적인 분류/정보

**구직자**

개인정보 등록  
선호기업/직무 등록  
지역/규모/업종/연봉 등

구직정보 게시  
직무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 청년 채용지원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 http://job.kosmes.or.kr ☎ 1899-3001

### 안정고용 숙련인력 양성사업

**모집대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예) 2인 1직 등 근무에 중소기업  
구직자: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지원내용**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2일 이내 1회)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총 3개월)  
채용연계: 기업 당 교육비 1회 50만원 (8시간/월, 최대 12회)  
실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연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참여기업 파일 다운로드 후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job@kosmes.or.kr 발송  
참여자: 중진공 취업매칭 시스템(job.kosmes.or.kr)에서 희망기업 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사후관리센터  
☎ job@kosmes.or.kr ☎ 1899-3001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단

**모집대상**  
기업: 구인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구직자: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군현지역의 경우 부위 간업 시 최대 만 38세 이하

**지원내용**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2일 이내 1회)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총 3개월)  
채용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연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참여기업 파일 다운로드 후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job@kosmes.or.kr 발송  
참여자: 중진공 취업매칭 시스템(job.kosmes.or.kr)에서 희망기업 후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사후관리센터  
☎ job@kosmes.or.kr ☎ 1899-3001

### 지역별 연락처

구분	지역별연락처	전화번호	구분	지역별연락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역본부	02-2106-7411	경주	전북지역본부	063-210-9921
	서울남부지부	02-2023-4301		전북남부지부	063-660-9830
	서울북부지부	02-769-6411		광주지역본부	062-600-3010
	인천지역본부	032-837-7020		전남지역본부	061-280-8030
인천	인천남부지부	032-560-2361	대구	경북남부지부	061-729-1566
	경기지역본부	031-260-4903		대구지역본부	053-606-8411
	경기남부지부	031-760-9011		충남지역본부	054-440-5921
	경기북부지부	031-783-0602		경북지역본부	054-288-7345
경기	경기남부지부	031-260-4926	충북	충북남부지부	053-603-3320
	경기북부지부	031-920-6731		충남남부지부	052-703-11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2-281-3730		충남지역본부	051-630-7421
	충청지역본부	041-589-4581		충남남부지부	051-745-5932
대전	충북지역본부	043-230-6811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70-9761
	충청남부지부	043-841-3611		경남남부지부	055-310-6611
	강원지역본부	033-269-6931		경남남부지부	055-751-2902
	강원남부지부	033-649-9372		제주	제주지역본부

# 이통3사, '갤S20' 일제 개통... 내달 3일까지 예판 연장

사전에 예약 1주일로 협정 맺었지만 소비심리 위축, 제조사 우려 등에 1주일 더 연장해 총 기간 2주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강화 유튜브·컬러마케팅 등 중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음에도 이동통신사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단말 ‘갤럭시20’ 시리즈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사는 애초 ‘신사협정’ 차원에서 사전예약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제조사의 우려에 사전예약 기간을 결국 2주일로 연장했다.

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S20 개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애초 26일에서 내달 3일까지 연장됐고, 사전개통 기간은 3월 5일까지다.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엿새간 갤럭시S20 시리즈의 예약물량



KT 갤럭시 S20 론칭행사의 진행을 맡은 BJ 엔조이커플이 갤럭시 S20을 소개하고 있다. /KT

은 36만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각 이동통신사가 집계한 사전예약 접수 현황을 보면, 갤럭시S20 모델 별 예약 비중은 ‘갤럭시S20 울트라’ 비중이 높았고, 뒤를 이어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순이었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전용폰 색상에 따라 선호하는 고객층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갤럭시S20 플러스 모델 예약 가입자의 절반은 여성 고객으로 집계된 반면, SK텔레콤 사전예

약 가입자는 30·40대 남성 고객 비중은 40%에 달했다.

KT의 갤럭시S20플러스는 전용색상인 ‘아우라레드’를 선택한 가입자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개성을 중시하는 20·30 고객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SK텔레콤도 전용 색상인 ‘아우라블루’ 예약 비중이 약 40%로 1위를 차지했다. KT의 아우라레드는 여성, SK텔레콤의 아우라블루가 남성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각 색상에 대한 니즈에 선

호 고객층이 달라진 셈이다.

이번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개통 행사가 사라진 대신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행사가 눈에 띄었다.

KT는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론칭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조치로, 전통적인 초청 행사 대신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 유튜브 론칭 행사에서는 4000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했다.

KT는 전용컬러 아우라 레드 출시를 기념해 TV 광고 속 ‘제니 레드 따라하기’ SNS 프로모션도 연다.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0플러스 레드와 갤럭시 버즈플러스 레드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가장 잘 따라한 고객에게는 TV 광고 속 제니의 의상을 제공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온라인 구매를 하는 이용자도 늘었다. 실제 SK텔레콤의 T월드 다이렉트 ‘오늘도착’ 서비스를 선택한 비중은

30%에 달해 전작보다 1.5배 늘었다. ‘오늘도착’은 고객이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 가입을 완료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갤럭시S20을 개통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대해 ‘온라인 개통 택배 배송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갤럭시S20 시리즈는 당초 26일 사전예약을 마감하고 27일부터 사전예약분에 한해서만 개통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사전예약 일정은 내달 3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다만, 갤럭시S20 시리즈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올리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갤럭시S20 시리즈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 3000원으로, 전작의 반절에 불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공시지원금 경쟁도 사라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도 위축돼 당분간 온라인 채널 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유럽 건물서 SKT ‘5G 인빌딩 기술’ 쓴다

SKT-도이치텔레콤 기술협력 맞춘 독일 도시에 ‘5G RF 중계기’ 구축

SK텔레콤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이 유럽에 보급된다.

SK텔레콤과 유럽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5G RF(Radio Frequency) 중계기’를 올해 2·4분기 중 독일 주요 도시에 구축하고, 고객 체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G RF중계기’는 실외 기지국의 5G 전파를 받아 빌딩, 터널, 지하공간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실내로 증폭·확산하며, 5G 커버리지를 넓히는 핵심 장비다.

SK텔레콤 5G RF 중계기는 우선 네트

워크 연결 없이 신호를 중계한다. 5G RF 중계기는 지난해부터 한국 내 주요 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올해 1월 이 중계기를 독일·유럽 5G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했다.

양사는 이달부터 중계기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올해 2·4분기부터는 독일 내 고객 200명을 대상으로 고객 체험 서비스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이치텔레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향후 양사는 고객 체험 서비스에서 얻은 고객 피드백과 데이터를 분석해 독일 5G네트워크에 중계기를 최적화한 후 독일에서 상용화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 삼성전자 ‘갤 워치 액티브2’ 2종 출시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2종인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사진)’과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 알루미늄 모델을 28일 국내에 출시한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은 업그레이드된 거리 측정 기능 지원 등을 통해 골프를 더욱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기본 탑재된 ‘스마트캐디’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골프 라운드 시 필요한 거리 측정 기능은 물론 전 세계 4만여 개 골프장 코스 정보와 그린의 높낮이 정보를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은 불소고무 재질의 가벼운 착용감을 갖춘 골프 스트랩을 기본으로 제공해, 뛰어난 통기성은 물론 땀과 비에도 걱정 없는 강력한 방수 기능을 탑재해 스포티한 디



자인을 완성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골프 에디션은 아쿠아 블랙의 44mm 모델과 핑크 골드의 40mm 모델 2가지로 출시되며, 각각 39만 9300원, 35만 9700원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전국 골프존 마켓, 온라인 골프 쇼핑 사이트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 LTE 알루미늄 모델은 44mm와 40mm의 2가지 사이즈, 아쿠아 블랙, 클라우드 실버,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선보이며, 각각 39만 9300원, 35만 9700원이다. 제품은 전국 이동통신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비방 수위 높이는 ‘땅콩 연합’ 조원태 중심 단단해지는 한진

KCGI “실패한 경영” 비판에도 조원태 주주 친화정책 속도 높여 임직원 동요 않고 주식사기 운동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진그룹 임직원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조 회장은 주주 친화 정책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최근 유휴 자산 매각 주권사 선정에 대해 투자은행 등 관련사에 매각 자문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매각 대상 유휴자산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3만6642㎡)와 건물(605㎡) ▲대한항공이 100% 보유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갈호텔네트워크 소유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 토지(5만3670㎡)와 건물(1만2246㎡)이다. 제안 요청서는 부동산 컨설팅사, 회계법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중개법인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12개사에 발송됐다.

한진그룹은 다음달 24일까지 이들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매각 주관 후보사를 선정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해 최종 주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권사는 시장분석 및 매수 의향자 조사, 자산 가치 평가, 우선협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상자 선정, 입찰 매각 관련 제반 사항 지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입찰사는 매각 건별로 제안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안도 가능하다.

앞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 6일과 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비수익 유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내 호텔·레저 사업 전면 구조 개편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비수익 유휴 자산 매각 작업의 본격 시작에 대해 한진그룹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반 조원태 연합군인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 성과가 실패 수준”이라며 “실패한 경영자”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반 조원태 연합군의 또 다른 한 축인 반도건설이 한진칼 추가지분을 취득하는 등 정기주주총회 이후 임시 주총을

통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소액주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 조원태 연합군이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록 한진그룹 내 임직원들의 반감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사내 익명게시판에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주주연합을 회사를 병들게 하는 ‘코로나 같은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한진칼 주식 단 10주씩이라도 사서 보탬이 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한진그룹 내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노동조합 등은 물론, 전직 임원회들도 조 회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KCGI측이 조 회장에 대한 비판을 키워갈 수록 오히려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견고하게 집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원태 회장과 반 조원태 연합군의 치열한 공방은 다음달 25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 길은 따라가는 것
- 길은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니까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시작하는 LIFE를 위해



LG는 스타트업 테크페어를 통해, 공동 연구·사업화 및 투자 지원·연구 공간 제공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車 앞 유리에 주행정보’ 윈드실드HUD시장에 출사표

HYUNDAI  
MOBIS

선형개발 마치고 양산 준비  
제네시스 GV80에 첫 적용  
내비게이션 연동, 경로 등 안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운행 시 쉽게 주행 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돕는 첨단 장치인 ‘윈드실드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이 장치는 운전석 앞 유리에 주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장치로,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SUV인 GV80에 첫 적용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AR(증강현실) HUD 기술도 선행 개발을 마치고, 양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HUD 양산 적용



현대모비스의 윈드실드 HUD 작동 실제 모습

을 통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4대 핵심 기술로 불리는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Full D-Cluster(풀 디지털 클러스터) ▲SVM(서라운드 뷰 모니터)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매틱스) 양산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HUD 시장은 2~3개 해외 부품업체들이 독점해왔다. 현대모

비스는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쳐, HUD 제품 군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확보한 이 분야 4대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각 장치마다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기들을 하

나의 제어기로 합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첫 양산한 12인치 윈드실드 HUD는 기존 제품 대비 확장된 화면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주행 경로, 도로 교통표지판 정보, 주행 보조 정보 안내 등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을 활성화하면,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제공을 통해 최근 차량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작동, 스마트폰 활용과 같은 운전자 시야 분산 및 인지능력 저하 요소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AR(증강현실) HUD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R HUD는 실제 도로 위에 3차원

가상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전방 주행 자동차의 위치나 거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실시간 주변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차세대 HUD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칼스텐 바이스 현대모비스 IVI 시스템개발센터장(상무)은 “미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단순한 운전 보조, 정보 제공 장치를 넘어 탑승객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통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과 통신·편의·보안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는 IC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3D 아바타로 구현된 상대방과 가상의 공간에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美 기업들과 AR 협업추진

## 3D아바타 의사소통 서비스 연내 출시

멀리서도 AR공간서 만나 대화

증강현실(AR)글라스와 5G스마트폰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3D아바타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페셜과 AR디바이스 전문 제조기업인 엔리얼, 퀄컴과 손잡고 5G를 기반으로 하는 AR 협업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혔다.

스페셜과 엔리얼, 퀄컴 등 제조사 이외에도 KDDI(일본)와 도이치텔레콤(독일) 등 5G 도입을 앞둔 해외 통신사도 글로벌 파트너사로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각 회사가 지닌 기술력과 서비스 등 장점을 결합해 이용자가 멀리서도 AR 공간에서 만나 대화하고, 증강현실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아시아나항공, 취항지 10곳 신규 추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신규 커넥팅 파트너 타이항공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 커넥팅 파트너 선정을 통해 운항 지역을 넓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가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타이스마일항공을 신규 ‘커넥팅 파트너’로 선정하고 방콕에서 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타이항공 본사에서는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타이스마일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두 번째 커넥팅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선보인 커넥팅 파트너 모델은 스타얼라이언스의 정식 회원사는 아니지만 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타йс마일항공은 현재 9개국 32개 도시로 매주 396편 이상의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타이스마일항공의 영입을 통해 스타얼라이언스는 기존에 회원사가 운항하지 않던 취항지 10곳을 새로이 추가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현대제철, 고성능 강재로 시장위기 정면돌파

올해 경영방침 ‘기업체질 강화’ 판매 목표 27만t ↑, 918만t 설정

현대제철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고성능 강재 시장 공략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선다.

27일 현대제철은 고성능 브랜드 강재 마케팅을 강화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올해 경영방침을 ‘기업체질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로 확정하고 수익성 극화에 집중한다. 올해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 판매 목표도 작년보다 27만톤(t) 증가한 총 918만톤으로 잡았다.

◆ 내진·내화 등 복합 성능을 갖춘 고급 건축용 강재 ‘H CORE’

이같은 목표달성의 중심에는 현대제철이 지난 2017년 출시한 고성능 건축용 강재 브랜드 ‘H CORE’가 있다. 이 제품은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 2019년 2월에는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내화내진 복합 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건축용 강재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내화내진 H형강은 1㎡ 면적당 약 36kg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강재온도가 600℃까지 상승해도 상온 대비 67% 이상의 항복 강도를 유지해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내화내진 복합강재를 사용할 경우 건물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내화피복제 사용량 절감 및 공정 감소를 통해 공기 단축과 건축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이 작년 내수시



현대제철이 '2019상하이모터쇼'에서 자동차 전문 브랜드 'H-SOLUTION' 부스를 통해 고장력 강·핫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제철

장에 공급한 H형강 제품 150만톤 중 40만톤 이상이 H CORE였고, H CORE 철근 제품도 12만톤에 달했다.

◆ 대형 규격 H형강 ‘RH+’ 선보여

현대제철은 지난해 H형강 제품의 규격을 확대한 대형 규격 H형강인 RH+를 론칭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기존 82개의 H형강 제품규격에 55개의 대형 규격 및 39개의 중소형 규격 등 총 94개를 새롭게 추가해 안전성과 강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규격 확대를 통해 강재 사용량 절감은 물론 이음새 없는 대형 규격 공급으로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H+를 사용한 VE(Value Engineering)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제철은 RH+ 공급을 통해 수입 H형강에 대한 대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KS의 H형강 규격은 일본의 JIS규격 356종, 미국의 ASTM 규격 283종, 영국의 BS규격 111종 등 해외의 H형강 규격 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KS에 등재된 적은 수의 H형강 규격으로는 각종 구조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단면치수와 성능에 부응하지 못했

지만 이번 현대제철의 규격 확대로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수입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최근 RH+를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에서 최소 10% 이상의 강재 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

◆ 자동차 전문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론칭한 자동차 전문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은 자동차 소재 분야에 대한 현대제철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SOLUTION’은 고장력 강·핫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 단위에서부터 성능과 원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성·성형·용접·방청·도장·부품화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브랜드다.

현대제철은 ‘H-SOLUTION’이 주목을 받은 자동차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신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00억 원을 투자해 냉연설비를 최신화 하는 한편, 내년 1월 양산을 목표로 체코 오스트라바(市)에 핫스탬핑 공장을 신설하는 등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美 증시 너마저... 갈곳 잃은 투자자, 돌고 돌아 中으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하락세  
中 증시회복... 온라인소비재 등 주목  
2월 ETF수익률 상위권도 中 점령

불안한 증시 속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중국 증시로 향하는 분위기다.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낙폭을 만회하며 V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반영됐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미국 증시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3.77포인트(0.46%) 하락한 2만 6957.59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2200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기술적 반등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7%로 소폭 올랐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38% 내렸다.

〈이달 ETF 수익률 상위 10종목〉

순위	운용사	ETF명	수익률(%)	보수
1	삼성자산운용	KODEX 심천ChiNext(합성)	27.52	0.47
2	한화자산운용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	22.82	0.5
3	케이비자산운용	KBSTAR 팔라듐선물(H)	21.85	0.6
4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차이나 CSI300레버리지(합성)	21.28	0.59
5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 CSI300레버리지(합성)	19.52	0.5
6	신한비엔피파라비자산	SMART 중국본토 중소형 CSI500(합성 H)	16.93	0.6
7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CSI300	12.03	0.7
8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차이나CSI300	11.61	0.63
9	삼성자산운용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10.47	0.35
1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원유선물인버스(H)	10.13	0.7

/한국거래소

반면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중국 증시는 완전히 회복했다. 춘절 직후 4일 저점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27일 대형주 위주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달 저점 2685포인트에서 2991포인트로 약 11% 상승했다. 주식시장 2부 격인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지난 4일 1553포인트에서 17거래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중국 증시로 돌아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 주식을 늘려야 한다”는 통념이 이번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부양책 시행 본격화로 인한 반등 조짐이 보여서다. 소비와 인프라 수요가 산업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에 바탕을 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 있

다”라며 “최근 일련의 조정이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춘절이 끝난 후 인민은행이 증기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하며 급격히 불어난 유동 자금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큰 힘이 됐다. 여기에 시장에서 중국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과 대출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 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며 급격한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소비 반등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며 “2003년 사스 사태를 계기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B2B, B2C기업이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배달서비스 1위 업체인 징동 따오지의 춘절 기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70% 올랐다. 추가로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TMT(테크·미디어·텔레콤) 성장

주를 꼽았다.

ETF 역시 상승세다. 이달 ETF 수익률 상위권에 중국 ETF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심천ChiNext(합성)은 27.52%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 22.82%, KBSTAR 팔라듐선물(H) 21.85%,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 21.82%, KINDEX 중국본토CSI300레버리지(합성)이 21.28%, KINDEX 중국본토CSI레버리지(합성)이 19.52%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수익률 상위 10위권을 기록한 ETF 중 7개가 모두 중국발이다.

다만 위험요소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경이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2분기 중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럴 경우 추가 정책 기대감 약화 등이 맞물리는 2분기 중후반 이후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외인 자금 하루새 1조588억 이탈... 8년6개월來 최대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투자 불안  
삼성·하이닉스 등 IT주 집중 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8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되며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그들의 대규모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1조58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 순매도 금액은 지난 2011년 8월 10일(1조2763억 원) 이후 8년 6개월여 만의 최대 규모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876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일별 순매도 기준으로 9551억 원을 판 2013년 6월 13일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팔아치웠다.

대형 정보기술(IT)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26일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3973억 원)와 SK하이닉스(1367억 원)였다. 이날 하루에만 5340억 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연초 상승 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27일 역시 4076억 원을 팔아쳤다. 이날까지 이달 국내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조 8415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가 우려되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일 국내 주식을 사들이

는 중이다. 외국인이 8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26일 개인은 78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뺏어낸 매물을 대부분 받아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 급격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전염병 공포로 인한 증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다. 기관도 384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여놓아야겠지만 중국에서는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현재 지수 레벨에서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태화 기자

##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 안암1구역 27일 총회

반포1단지 3주주 현장설명회가 지난 25일 개최된 가운데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위한 국내 건설사의 수주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은 27일 오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시공권을 두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의견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남광토건 ▲한라 ▲동문건설 ▲반도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암1구역 재건축은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서울 재건축 사업을 두고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주(재건축), 신반포15차(재건축), 한남3구역(재개발) 등으로 시공권 획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상황을 이뤘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6곳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육아부터 제빵까지... 메리츠證, 13년째 나눔 실천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  
매월 한번 자발적 봉사활동 펼쳐

메리츠증권은 지난 2007년 봉사단 출범 이후 매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발적 활동임에도 참여 열기는 뜨겁다.

27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출범한 ‘메리츠 참사랑 봉사단’은 매월 한 차례씩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실무진이 전 직원에게 사내메일을 보내면 관심있는 직원이 신청을 하는 식이다. 100% 자발적 활동이다.

‘참사랑봉사단’은 어르신 생신잔치, 무료급식 지원 활동, 김장활동과 나누기,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테마의



메리츠증권 임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메리츠증권

봉사활동을 매월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분기별로 두리훅을 방문해 ‘미혼모 아기 돌보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임직원과 직원 가족 13명이 두리훅의

가족들과 함께 영등포구 소재 씨탈라 워터파크를 방문해 물놀이를 즐겼다.

매년 여름에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2008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행사 두어달 전부터 임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증 받고, 행

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명예점원이 되어 판매활동을 펼친다. 활동을 통한 판매수익은 전액 기부한다.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도 연례행사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말을 활용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봉사와 여가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이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구로봉사센터를 통해서 사랑의 빵 만들기과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마다 인근 지역 홀로된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대접한다. 지난 1월 21일에는 구정을 맞이해 38명의 인원이 직접 포장한 명절 음식을 마포구 일대 13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전달했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 아픈손가락서 알짜수익 효자로

## 저축은행 라이벌 열전

### ① 지주계열

신한·KB·하나·NH저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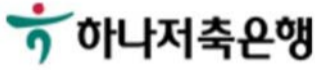
금융지주계열 저축銀 모두 호실적  
신한, KB저축銀 대표 연임 성공  
지주사 혜택으로 안정적 수익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경우 지주계열의 저축은행들은 자산이나 순이익 등이 상위권 저축은행의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권 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증권사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을 통해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인 신한·KB·NH·하나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중금리대출과 개인소매대출, 기업대출 등의 상품 판매를 통해 하나같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저축



은행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통해 전년대비 19.3% 상승한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 지주계열 저축은행 1위를 달성했다. 2016년 116억원에 비해 3년만에 2배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셈이다. 이어 KB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10억원 대비 48.18%나 늘었다.

지난해 호실적에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의 각 대표들은 모두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특히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는 2+1의 관행을 깨고 4연임을 이었다.

이 외에도 NH저축은행은 전년 대

비 41.4% 증가한 181억원을 올렸고 하나저축은행은 16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적표를 보였다.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은 경쟁사보다 지주사의 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사를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상품을 지주사 금융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연계 영업을 대표적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각각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이다. 인수 당시에는 적자에 허덕이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현재는 알짜 수익을 자랑하는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NH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의 대표들도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는 오는 6월, 오화경 하나저축은행은 3월에 각각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성장 궤도에 올라선 만큼 대표들의 연임 또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한화정밀기계 임직원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한화정밀기계 獨서 협동로봇사업 확대전략 공유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 개최

한화정밀기계가 협동로봇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정밀기계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기술센터에서 협동로봇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을 지난 25~26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은 한화정밀기계 협동로봇과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모여 글로벌 사업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22개국에서 모인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협동로봇 사업 확대 전략과 판매 정책을 공유하고 개발 로드맵,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유럽 지역 중 뛰어난 실적을 기록한 대리점을 시상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한화정밀기계 협동로봇은 유럽 매출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협동로봇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독일에서 파트너스 데이를 기획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엔지니어링, 印尼서 4370억 추가 수주

## 황회수설비, 수소생산설비 설치 발릭파판 정유공장서 기술 인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추가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에 황회수설비와 수소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총 4370억원(3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은 약 2792억원(2억3000만달러·64.6%)이다.

이번에 수주한 황회수설비(SRU)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회수소(H2S)로부터 황을 회수하는 설비이며, 수소생산설비는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해 정유공장 설비에 공급하는 설비다.

이번 수주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



난해 9월 수주해 현재 수행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 페르타미로부터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역량 등을 높게 인정받은 성과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맞물려 현대엔지니어링

의 인도네시아 추가 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이번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한솔제지 대전공장 증설에 323억... 생산능력 강화

생산설비 내년까지 투자 마무리

한솔제지가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고급포장재 등에 쓰이는 백판지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화한다.

한솔제지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전공장에 있는 백판지 생산설비 확대를 위해 총 32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와 핵심 수출지역인 동남아 추가 공략을 위해서다. 설비 투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짓는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늘어난 생산 속도에 맞춰 원료공급부터 제품포장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백판지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 고급 포장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솔제지의 백판지 생산규모는 기존에 연간 71만톤이었다.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만 40%로 한솔제지에 이어 깨끗한나라(26%), 세아(14%)가 각각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백판지 사업을 영위하던 신평제지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한솔제지는 내친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백판지 부문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환경규제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국내 폐지의 공급과잉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銀, 업계 첫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음성OTP 서비스 단점 개선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용 음성OTP(One time password)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OTP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OTP는 빠른 배터리 소진, 음성 미출력 오류, 이어폰 연결불량 등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했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OTP(스마트보안카드) 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은행과 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시각장애인은 우리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푸시(PUSH) 알림 ▲앱 실행 ▲6자리 비밀번호 입력 ▲임시비밀번호 자동생성 및 자동입력 순으로 인증이 진행된다. 현재 텔레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OTP 서비스를 해당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명의 스마트폰에 디지털OTP 앱을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1사1교 금융교육’ 금감원장상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된 ‘2019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금융회사 부문과 우수금융회사직원 부문에서 각각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예정된 시상식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금감원장 추사와 수상자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 배포로 대신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에 있는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한다. 금감원은 매년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해 금융교육 발전에 공헌한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학교, 교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상자별 필요에 맞



신한은행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춘 주제별 맞춤형 금융교육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영업점 직원들이 참여해 생생하게 들려주는 금융이야기 등을 통해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NOT BEEF, BUT VEEF!

Ria **미라클버거**  
MIRACLE BURGER



고기 없이 고기 맛이 나는 기적!



*New*



**리아미라클**

세트 ₩7,400 버거 ₩5,600

동물성 원재료 성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조리 시 교차 혼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 KT&G, 중동 2.3조 계약 체결

# 글로벌 빅4기업 도약 목표

해외 주력시장 리스크 최소화  
작년 매출액의 약 50% 규모  
진출 국가 100여개국으로 확대

KT&G는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와 2조2576억 원 규모의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식했다.

이번 계약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약 50%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KT&G는 이번 계약으로 지난 2년간 중동지역 정세 불안, 환율 급등 등 영향으로 주춤했던 해외 주력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또 연간 최소구매수량 조항을 신규 설정해 장기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력시장의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KT&G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담배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



백복인 KT&G 사장(왼쪽)과 안드레 칼란조폴로스 PMI 최고경영자가 전자담배 필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 체결 서명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T&G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PMI(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와의 전자담배 수출계약과 함께 이번 일반담배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쉐련·전자담배 쌍골이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한 차원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KT&G는 지난달 29일 PMI와 글로벌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 '릴(III)'을 통해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KT&G는 3년간 '릴(III)'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이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KT&G 관계자는 "2025년까지 '글로벌 빅4(Global Big4)' 기업 도약을 목표로 국내외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해외시장 공략 중"이라며 "향후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 통해 진출 국가 수를 현재 80여 개국에서 올해 10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강력한 팬덤가진 '웹툰' 더하니 게임 고공행진

# 지난 18일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인수한 데이세븐은 인기 게임 '일진에게 찍혔을 때' 등을 서비스하는 스토리 게임 기업이다. 컴투스는 데이세븐의 지분 51.9%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일진에게 찍혔을 때 지식재산권(IP)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엔씨소프트의 버프툰 '글로벌 웹툰스타 오디션' 수상작 발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 네오위즈는 네이버 인기 웹툰과 손잡고 지난 2006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최장수 인기 작품인 '마음의소리' IP를 활용, 지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게임과 웹툰이 상부상조하는 기세가 무섭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를 먹듯 가볍게 즐기는 '스낵컬처(Snack culture)'의 대표 콘텐츠인 웹툰은 게임과 같은 다른 미디어와 협업과 사업 다각화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을 포함한 국내 만화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수출은 19.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웹툰 시장에서 연재 중인 작품은 8680편에 달했다.

게임 업계는 성장세를 달리는 웹툰과 손잡고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서고 있다. 웹툰은 소형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세계관을 자유

롭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깃층도 10대~20대로, 게임 이용자층과 겹치는 감점이 있다. IP에 목마른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IP보다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웹툰 IP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넥슨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PC온라인 사업본부와 모바일 사업본부를 통합하고 주요 IP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리니지' 등 강력한 IP를 보유한 엔씨소프트는 아예 웹툰 플랫폼 '버프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판타지, 드라마 등 여러 장르의 웹툰을 모바일, PC로 제공한다. 웹툰 서비스인 레진코믹스에도 지난 2014년 50억원을 투자했으며, 글로벌 웹툰 공모전을 열며 신규 IP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산업계 풍속도

# 1 주총 4월로 연기 검토

- 2 신제품 출시 연기
- 3 모터쇼 잇단 캔슬
- 4 마케팅 활동 축소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신제품 출시나 기술 공개 행사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 하락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인력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당초 3월 중으로 예정했던 주주총회를 4월달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주총 현장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직 1달여 남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로 실제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사업계획이다. 업계가 상반기 시장 안정을 예상하던 상황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LG전자가 이달 초 MWC 2020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V60 씽



삼성전자는 제50회 정기 주주총회를 별탈없이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큐를 27일에서야 글로벌 뉴스를 통해 처음 발표했다. 국내 출시도 없다. 3월 중 미국과 유럽 등으로만 판매한다. 코로나19와는 관련없지만,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린 탓에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더 심각하다.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와 신형 제네시스 G80, 기아자동차 쏘렌토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르노삼성 XM3는 예상대로 출시할 예정이지만 공개 행사가 불발되면서 관심 끌기에 제동이 걸렸다. BMW코리아 역시 1&2 출시행사를 취소했다. 자동차 관련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당장 다음달 예정됐던 '2020수소모빌리티+쇼'가 하반기로 미뤄졌고, 4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모터쇼도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제네바모터쇼가 강행을 선택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힘이 빠졌다.

반도체 업계는 시장 침체에 이어 투자 감소 공포까지 몰아친다. 시장 활성화로 대대적인 설비 확대가 예상됐었

지만, 코로나19에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일정을 늦추지 않겠냐는 우려다. 일단은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투자 증가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올레드 TV 가격 하락도 불투명해졌다. LCD 패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레드 TV 가격을 방어해주는 분위기라서다. 올레드 TV 대중화 핵심이었던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도 당초 기대처럼 1분기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그나마 예정대로 진행한 사업 계획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탓에 예상만큼 실적을 내기 어려워져서다. 그나마 가전이나 IT 업계는 기대했던 수준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실적 하락이 이미 가시화됐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 제약뿐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 “공장 가동 멈출라” 유화업체도 발동동

국내정유사, 피해최소화 위한 대책  
LG화학, 의심환자 발생해 혼란



국내 유화업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내 유화업체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내 유화업체가 지방 소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근무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일단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주요 정유 4사는 물론 화학업계도 사업장과 함께 사내에서도 대면의 횡수를 최소로 줄이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힘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유업체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업장 내에서 정유 시설을 컨트롤 하는 조정실 등 핵심지역에 해당 근무자 외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또한 현장 공사 작업의 경우, 이전에는 10~20명 단위로 조를 구성했으나 앞으로 4~5명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업자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유연하게 운영해, 임직원이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점심 시간에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임신부나 육아 중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및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전체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도 실시한다.

GS칼텍스도 그동안 '사내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진행해왔다. 사업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사용을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 사내에서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사내 대면 회의를 줄이고 출장 및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해외법인 근무자 관리 강화, 임직원 유의사항 교육 등 근무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근무자의 열을 확인하고, 출퇴근 통근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사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조를 나눠 간식을 떨어뜨려 식사를 하고 있다. 또한 에스오일은 사업장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사내 회의는 유선이나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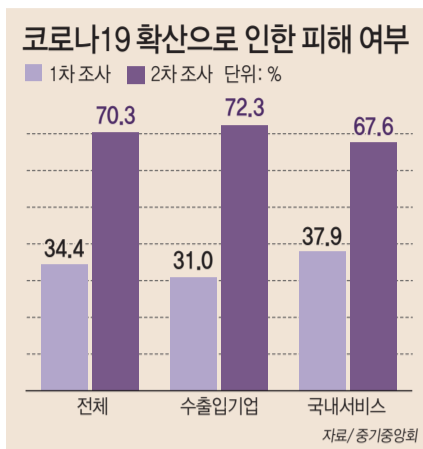
국내 화학업계도 사내뿐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섰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전 직원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의 경우, 통근버스도 상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화학 오창2공장에서 지난 24일 청주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던 직원 1명이 미열 증상을 보여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노란우산 함께~”... 소상공인 향한 김기문의 착한상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중소 10곳 중 7곳 ‘코로나19’에 경영 타격 받지만 더욱 힘든분들 도와야 할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4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약자가 더 약자를 도와주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외치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하겠다고 본격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들이 적극 나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나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 중에선 3곳 중 2곳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등 중소·벤처업계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대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면서 “이 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매출이 줄고 돈이 필요

한데 오히려 은행에선 차입금 상환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특히 받은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은 추가 대출도 어려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이전 중소기업이 적극 나서 더욱 힘든 분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중소기업전시판매장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 할인폭을 기존 20%에서 50%까지 늘려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판매장에는 현재 40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와 중기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 지역 중소기업회장, 회원조합 이사장 등 657개 조합·단체장 가운데 건물 임대료를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약 160만명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만 17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 만형인 중기중앙회가 이같은 운동을 시작해도 유인책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임대인은 임대인보다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안다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호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MF나 금융위기때 등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번에도)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25~26일 사이 수출기업, 중국수입기업, 소상공인등 국내 서비스업 등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3%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차 조사(2월4~5일)때 ‘경영상타격(34.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보다 앞서 벤처협회가 회원사 628곳(응답 61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결과에선 223곳(36.4%)이 직접 피해를, 160곳(26.1%)은 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AI 네트워킹 잇단 취소... AI협회 ‘한숨’

코로나19에 주요 사업계획 차질 이메일·서면 대체 등 무기한 연기

코로나19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공지능(AI) 협회 및 기업들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네트워킹 행사가 잇따라 취소돼 고심하고 있다.

AI 협회 및 기업들은 올해 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매칭이나 고객발굴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만남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는 네트워킹 행사 자리 마련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를 이메일 회의로 대체하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미뤘으며, 추후 상황을 봐서 행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AI대표 협회인 지능정보산업협회는 대기업·금융권 등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AI 기술 기업들을 모두 보유한 만큼 매달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조찬포럼과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해 왔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다.

코로나19사태 초기였던 지난 12일에는 조찬포럼을 정상 개최했지만, 20일 개최 예정이던 2월 네트워크 만찬은 취소했다.

네트워크 만찬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AI 기업에게는 자사의 기술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또 3월에는 오는 11일 총회를 겸해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만찬 행사도 개최하려고 했지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취소했다. 대신 총회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총회는 서면 결의서에 지난해 결산, 올해 경영계획 승인, 이사회 승인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가·부를 선택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회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자리 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변의 만류와 우려로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과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플랫폼 전문업체인 에이모(AIMMO)는 당초 지난 13일 강남타워에서 ‘2020 AI·빅데이터 로드맵’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행사를 취소했다. NBP와 에이모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데이터 가공 비즈니스 사례 및 활용방법, 컨설팅 등을 지원해 AI 데이터를 가공하는 수요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 ‘3연임’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사진)이 제15대 한국신발산업협회장에 재추대됐다. 문창섭 회장은 3연임을 하게 됐다. 한국신발산업협회는 2020년 정기이사회 겸 총회를 열고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문 회장을 재추대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업계를 위한 열정과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문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원부자재, 부품, 소재 등 뿌리산업부터 완제품산업에 이르기까지 신발산업 전반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탄탄한 미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갈 것”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인 육성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터라 이를 적극 보완, 지원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부산상공회의소상임의원, 개성공단비상대책공동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운영위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전방위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대구·경북 택배 무상지원

3월 한달간 이용료 전액면제

CJ대한통운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택배 서비스를 3월 한달간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으로 배송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발송하는 모든 개인택배 접수건에 대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주민이 CJ대한통운을 통해 접수했거나 외부에서 해당 지역으로 발송한 개인택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3월에는 이용수요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이용자들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보내는 주소(발송지) 또는 받는 주소(도착지)가 대구·경북지역인 예약건은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끝나면 해당 지역 택배기사들은 고객과 약속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집화할 예정이다. 접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생필품, 구호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택배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경동나비엔, 북미 추가공략 950억 투입

2024년 2.5만평 생산공장 건립

경동나비엔이 북미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물류창고와 공장 건립을 위해 총 920억원을 투자한다.

경동나비엔은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시티 카운티에 물류창고를 우선 짓고 오는 2024년까지 2만5000평 규모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동나비엔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콘텐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온수기 등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영

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 경동나비엔은 북미에서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효율 시장을 만들어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온수기 ‘NPN’을 출시했고,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통해 상업용 시장을 확대하는 등 현지에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회사측은 단기적으로 물류비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물류창고와 공장이 보일러, 온수기 수요가 많은 동부지역 시



경동나비엔 미국법인 나비엔 아메리카 전경.

장과 인접해 있고, 버지니아항구와도 가까워 자재수급과 물류 배송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지니아주에선 항만 경제 및 인프라 개발구 교부금 프로그램 지원 등을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文 “해운·항공 지원방안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

##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력 당부 국토부, 공적임대주택 21만호 공급 해수부, 어촌뉴딜사업확대 등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부 부처가 새해를 맞아 업무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이고, 17일 경제 부처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상황에 대비 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변함없이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업무 보고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해운·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 산업까지 민생과 국가 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 현안(서민 주거 안정·출퇴근 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역별 경제 거점 조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도심 내 쇠퇴 지역 공공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 자금 14조 원 투입,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 견인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

수부는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 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박량 확충, 어촌 뉴딜사업 확대, 부산·인천·광양·거제 등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국토·해양 현장을 연결해 사례에 대해 들어보는 방식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연결에서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에 따른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 선장과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민심 다독이기’ 황교안 TK행 “누가 이렇게 했나” 정부 비판

(미래통합당 대표)

대구서문시장·동산병원 등 방문 黃 “정부 걱정 막지 못한 내 잘못”

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 27일 대구를 찾아 ‘문재인 심판론’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대구·경북 지역(이하 TK)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힘입어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TK 봉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나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해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은 여전히 전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에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김명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전희경 대변인 등 당직자와 함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방문했다.

황 대표는 동산병원에서 조치흠 동산병원장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등을 만났다. 조 원장과 이 회장은 각각 부족한 의료 인력과 병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황 대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휴업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임시 휴장 중인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인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김영오 서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과 만났다.

시장을 둘러본 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년 전에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자부심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서문시장에) 와서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시장을)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 이 정부의 걱정을 막아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 “학습공백 메워라”... 교육업계 전방위 지원

**메가스터디교육·대성마이맥**  
고교 개학 전까지 강좌 무상 제공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과목별 강사 ‘긴급 Q&A 서비스’  
지자체와 무료 온라인학습 준비  
**쓰리제이에듀** ‘단어 암기 앱’ 무료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학생들에게 교육 업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27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과 대성마이맥 등은 고교생 대상 전 강좌를 개학 전까지 무료 제공하고, 쓰리제이에듀는 단어 암기 앱을 2주간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비상교육 수박씨닷컴도 ‘안전한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시행해 학생들의 학습공백 차단이 나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 모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2일에서 1주일 연기해 3월9일로 옮겼다. 학원 휴업도 권고되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올해 3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일정도 1주일 연기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 공백 우려가 나온다.

대성마이맥은 전체 강좌를 개학 전인 3월8일까지 모든 강좌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을 대비하는 고3이나 N수생뿐 아니라 내신을 준비하는 고2나 고1 모두 대성마이맥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식공유플랫폼주식회사디쉐어의 수능 영어 및 내신 전문 브랜드 쓰리제이에듀는 단어 암기 애플리케이션 ‘단 끝’을 오는 3월11일까지 약 2주간 무료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단 끝은 기존 재원생에 한해 무료 제공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모든 학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별도 비용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 배포가 종료되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의 중등 인강 사이트 수박씨닷컴은 중학생들을 위해 개학 연기 기간 중 학교 진도학습을 진행하도록 ‘안전한 프리스쿨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월28일부터 3월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9시30분까지 90분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리면 수박씨닷컴 과목별 강사들이 답변을 해주는 ‘긴급 Q&A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박씨닷컴이 운영하는 학습계획 서비스 ‘스마트플랜’을 통해 주당 학습시간을 늘린 새로운 계획표를 제공해 집에서 학습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수박씨닷컴은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 지역 등 지자체와 함께 무상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용수 기자 hys@

# “3D 프린터로 만든 국방부품 국내 조달”

국방부-산자부 국방규격 업무협약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중·저고도 대공화기인 발칸포에 주요부품인 ‘하우징 조절판’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부품은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국방부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함께 하우징 조절판을 비롯한 금속부품의 3D프린팅 제작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판’ 시제품을 제작했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판’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한신대-오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맞손

한신대학교는 오산시의 공동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신대와 오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실무시간 업무협조를 시작해 24일

상속 오산시장, 장인수 오산시의회의장과 이해영 한신대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에는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이 한신대 기숙사를 방문해 대학측과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

/한용수 기자

# 삼육대 약대·간호대 국가고시 100%합격

삼육대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은 최근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삼육대에 따르면, 약학대학 졸업예정자 37명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주관으로 지난 1월 22일 실시된 ‘2020년 제71회 약사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같은 날 열린 ‘제60회 간호사 시험’에서도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65명이 전원 합격했다. 특히 간호대학은 2018, 2019년 시험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고시 합격률 100%’ 쾌거를 이뤘다. /한용수 기자



# 화진포 별장 분양!

99㎡ : 1억 5천만 원 | 53㎡ : 7천만 원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제주 별장 분양!

90㎡ : 1억 3천만 원

\* 제주 한림읍 협재리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특전

- 1) 1년 365일 이용
- 2) 개별 등기 가능
- 3) 1가구 2주택 해당안됨
- 4) 회사, 개인, 동호회 별장

문의 : 02-541-0113

## 명품 해외 골프

- 1. 하와이 골프 8일 795만 원  
오아후, 빅아일랜드 관광골프
- 2. 터키 안탈리아 골프 10일 529만 원  
비즈니스 왕복 레그넘 카리아
- 3. 뉴질랜드 남섬 골프, 관광 8일 495만 원  
퀸스타운 관광
- 4. 아프리카 사파리+골프+트레킹 8일 685만 원  
탄자니아 세렝게티 사파리, 킬리만자로 트레킹
- 5. 남아공 골프+빅토리아 폭포 10일 780만 원  
케이프타운, 희망봉, 얼스골프, 빅토리아 폭포 관광
- 6. 호주 시드니 골프 관광 8일 495만 원  
PGA 코스
- 7. 서호주 골프, 투어 8일 420만 원  
퍼스 골프, 아웃백 자연관광



##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사우나, 가정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직상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 원적외선 사우나
- 캐나다산 직상목 원적외선효과
- 자동온도조절
- 인체공학적인설계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IL Tour 02-541-4242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lfcondo>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 02-542-9822 카카오톡 아이디 : golfcondo

코로나 비상, 대구·경북에 온정의 물결

## 아산재단 10억, 정몽준 이사장 10억 기부

관련 기관에 총 20억 전달키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재단에서 10억원을 지원하며,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사진)이 1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농심, 신라면 20만개 긴급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 통해 전달

농심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신라면 2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난상황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시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농심이 지원한 신라면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



농심 본사 전경

/농심

른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예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 이베이코리아, 1억 상당 위생용품 전달

손소독제·마스크 등 지원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총 1억원 규모의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한다.

‘도움이 절실한 현장에 정확히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자’는 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해온 만큼 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구·경북지역 소



방본부와 자가격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체인력들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은 “전 국민이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베이코리아도 가장 필요한 곳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원하는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서울장수 생막걸리 주류대상서 ‘대상’

서울장수는 2020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장수 생막걸리’, ‘장흥삼 장수 막걸리’ 등 2개 제품이 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회째 열린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좋은 술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리술, 소주, 위스

키·스피릿, 사케,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주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장수 생막걸리는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일반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삼 장수 막걸리는 ‘우리술 탁주 살균막걸리’ 일반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민지 기자

## 스타벅스, 삼일절 기념 무궁화머그 선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삼일절을 맞아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무궁화 머그 340ml’은 머그 림과 아트워크 라인이 리얼 골드로 표현되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깨끗한 도자기 상품으로 특유의 맑은 느낌이 도드라진다. ‘20 SS 무궁화 트로이 텀블러 355ml’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텀블러로 금색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과 함께 전통 한복 패턴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단아한 느낌을 강조했다.

신상품은 한데 모여 피어나는 무궁화의 아름답고 단아한 모습을 표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각 상품 후면에 ‘무궁화 우리나라 꽃 2020’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삼일절 상품 판매 수익금 1억 원을 조성해 오는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자손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사업에 사용한다.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



정병용 교수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원의 긴급유자를 비롯하여 해운·관광·외식산업에 4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관광업계를 비롯하여 여행·항공·외식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단기적 경기부양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2003년의 사스나 2012년의 메르스와 같은 일이 해가 지날수록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국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철저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국민스

스로가 건강을 지키고 방역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다.

또 한가지 명심하여야 할 점은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이런 기회를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된다.

이 기회에 그간 중국과 일본에 치우쳤던 외래관광시장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래입국자의 수도권 편향 관광이나 보따리 장사에 치우쳤던 저질 관광상품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내수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이나 사업자들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자세로 좀 더 느긋하게 성찰하고 유연한 자세로 일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는 역사가 지하는 성찰과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데는 다른 한편 우리의 삶의 질과 위생수준이 더 나아졌는데도 기인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질병에 대한 감별력도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전 같으면 모두 독감 정도로 알고 지나갔을 지도 모른다. 위생과 청결수준을 올린만큼 면역체계는 더욱 떨어진 것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고, 방역체계

이상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전염병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더욱 빈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는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특히 관광산업은 전염병과 중국이라는 변수를 하나의 커다란 상수로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일회일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두 변수를 상수로써 염두에 두고 대처해나갔으면 한다.

여가 관광에 대한 욕구는 소득의 증가 수준을 앞질러 상승하고 있으며, 여가·관광 산업은 유사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질병이나 정치, 경제 혹은 환경적 변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일은 있었지만, 길게 보면 여가·관광 산업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몇 날 몇 달이 걸릴지 몰라 불안 가득 보이는 이 사태가 원만히 극복되었을 때, 우리는 외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곧 도래할 호황기에 예년 수준 이상의 여가관광욕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관광학회

## 현대백그룹, 코로나19 비상 대구에 10억 지원

의료진·지원봉사자 등 위해 생필품·위생용품 추가 지원도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1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27일 밝

혔다.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의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 지원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의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아디다스 엠베서더로 손흥민·화사·이정후 선정

아디다스는 러닝 캠페인 ‘FASTER THAN: ~보다빠르게’를 런칭하고 더욱 새로워진 러닝화 ‘울트라부스트20’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흥민, 화

사, 이정후가 캠페인 엠베서더로 선정됐으며, 이들을 모델로 한 화보와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디다스 ‘FASTER THAN: ~보다

빠르게’ 캠페인은 ‘빠름’의 기준이 스피드와 기록이 아닌 개인의 만족과 성취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러닝을 통해 좀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스토리를 통해 빠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물류시설정보과장 한성수
-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 서정관 △사업총괄과장 박종민
- ◆매일일보 △산업부장(부국장) 송영택
-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김병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장 주혁규(영어영문학과) △간호대학장 은영(간호학과) △인문대학 부학장 김경필(중어중문학과) △인권센터장 박상식(해양경찰시스템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차춘남(산업시스템공학과)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장 유도현(수의학과) △기초과학연구소장 이준화(화학) △인권사회발전연구소장 이민규(심리학과)

### 부음

▲황용경씨 별세, 안상락·안상훈(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장)·안상필(한국철도공사)씨 모친상=27일 오전 3시 50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29일 오전 6시.

▲권현경씨 별세, 한병구(전 인천도시가스 상임감사)씨 부인상, 한석현(전 SBS PD)·한지희씨 모친상, 김주한(한국필름모리스 상무)씨 장모상=27일 오전 2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추모공원.

▲김복남씨 별세, 우현욱(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근무)씨 모친상, 김동근(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경서부지회장)·임준형(코너스톤개발 대표)·제갈철오(세인디앤씨 대표)씨 장모상=27일, 성서계명대동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 ‘고객의 빛 되겠다’ 전층 빛 투과... 경기권 최고 백화점

## 내달 2일 ‘갤러리아 광고’ 오픈

한화갤러리아가 오는 3월 2일 수원 광고 컨벤션복합단지에서 ‘갤러리아 광고’를 오픈하고 경기권 최고의 백화점으로 도약한다.

갤러리아 광고는 한화갤러리아(이하 ‘갤러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점포 중 가장 큰 규모이자 10년만에 오픈하는 신규 점포로 갤러리아 백화점 사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 받는다. 연면적 15만㎡에 영업면적은 7만 3000㎡(2만 2000평)로 지하층에서 지상 12층(영업 공간 지하1층~지상 12층)의 규모다.

### ◆외관부터 압도적인 존재감

갤러리아 광고의 경쟁력은 외관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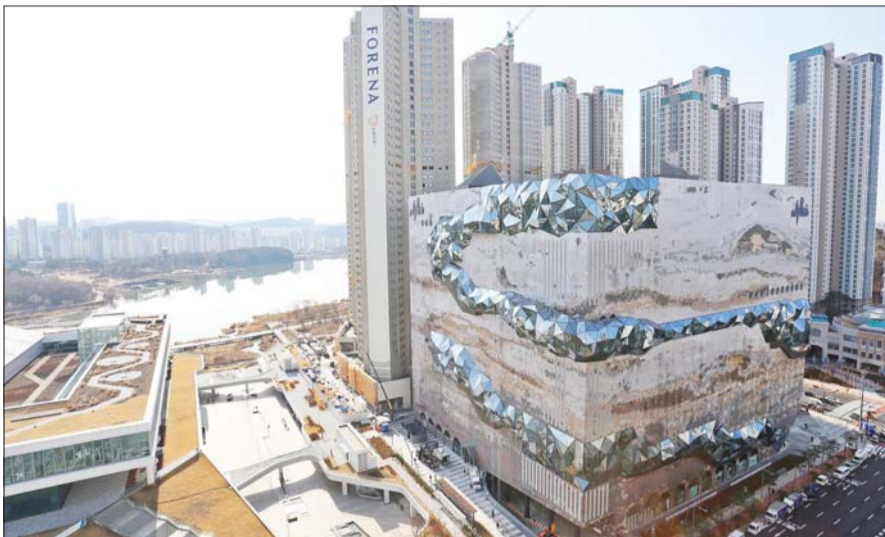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는 정형적인 형식을 깨고, 갤러리아 광고는 유리 통로인 ‘갤러리아 루프’로 백화점 최초로 전 층에 빛이 투과된다.

갤러리아 광고의 콘셉트는 ‘Lights in your life(당신 삶의 빛)’이다. 프리즘을 연상시키는 1451장의 삼각 유리가 ‘갤러리아 루프’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관통한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이 매장에 쏟아진다.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처럼 갤러리아 광고는 고객들에게 쇼핑, 문화, 예술, 미식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안,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다채로운 빛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총 540m의 ‘갤러리아 루프’에는 쇼핑 뿐 아니라, 유명 작가의 아트웍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3층과 10층 ‘갤러리아 루프’의 계단형 광장 ‘루프 스퀘어’에서는 아트웍 전시 외에도



갤러리아 광고 루프



갤러리아 광고 전경

/갤러리아백화점

10년만에 ‘한화 갤러리아’ 오픈 지상 12층... 5곳 중 규모 가장 커

유리통로 ‘갤러리아 루프’ 조성 삼각유리1451장 ‘프리즘’ 연상

구찌·펜디 등 440개 브랜드 입점 12층 ‘VIP 라운지’ 국내 최대규모

6~8층에 삼성·LG전자 특화매장 오픈 1년차 매출액 목표 5000억

이벤트가 병행되며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 ◆경기권 명품 수요 공략

갤러리아 광고는 이러한 파격적인 건축 디자인 기반 하에 수원 지역 최고의 명품 라인업을 갖추고 수원은 물론, 용인·동탄·분당 등 경기 남부권의 명품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총 브랜드는 440여개로 ▲구찌·펜디·발렌시아가 등 명품 뷰티를 비롯해 ▲불가리·예제르쿨트르·IWC·태그호이어·쇼메 등 명품시계 및 주얼리, 그리고 ▲오프화이트·발리·파비어나필리피 등 수원지역 최고의 명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주요 명품 브랜드로 구성된 2층 명품뷰티 매장은 올해 상반기내로 브랜드 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층별 구성은 ▲지하 1층은 식품관인 고메이 494 ▲1층은 화장품과 하이주얼리&워치 ▲2층은 명품뷰티 ▲3층은 명품여성·컨템퍼러리 ▲4층은 국내 여성 캐주얼·슈즈 ▲5층은 남성·아웃도어 ▲6층은 키즈·애슬레저·란제리 ▲7층은 스포츠·골프·진·이지캐주얼 ▲8층은 홈리빙 ▲9층은 식당가인 고메이월드 ▲10~11층 영화관(CGV) ▲12층은 VIP라운지(갤러리아라운지)·문화센터·유튜브스튜디오(갤러리아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2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인 갤러리아 라운지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광고의 VIP 커뮤니티를 리딩할 계획이다.

갤러리아 광고는 층마다 특정 수요와 취향을 특화한 매장을 선보인다. 특히 6~8층은 삼성전자 ‘프리미엄스토어’와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특화 매장을 통해 가전·전자 제품의 메카로 발돋움 한다.

6~8층에 복층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토어’는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미래형 매장이다. 3개 층을 관통하는 미디어아트와 AR(증강현실) 셀피존이 결합된 초대형 아트 구조물인 ‘인피니티 타워’를 설치하여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들의 상호 활동을 통한 복합문화 체험을 구현했다.

8층에는 LG전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용관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문을 연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지난

2016년 LG전자가 론칭 한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서울 논현동에 쇼룸을 개관한 이후 백화점에 전용관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냉장고, 와인셀러, 식기세척기, 오븐 등의 빌트인 라인업을 갖췄다.

### ◆2020년, 변화의 원년

갤러리아 광고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고급 오피스텔, 호텔과 아쿠아리움(올해 말 오픈 예정)등 다양한 시설이 연계된 형태로 갤러리아가 처음 선보이는 대형 복합 쇼핑몰의 형태다. 이에 갤러리아는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백화점인 압구정동 명품관에 이어 갤러리아 광고를 ‘제 2의 명품관’으로 키우겠다는 비전 하에 오픈 1년차 매출액 목표를 5000억원으로 한다.

갤러리아 김은수 대표이사는 “갤러리아 광고는 명품 브랜드 입점 뿐 아니라,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며 명품관, 대전 타임월드와 함께 백화점 사업 성장 동력의 트로이카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은 갤러리아 광고 오픈을 필두로 백화점 사업 강화와 함께 온라인몰 개편, 플랫폼 기반 신사업, 신규 브랜드 발굴 및 사업 전개가 가시화되는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아 광고는 최근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오픈 당일 오전까지 방역 활동 및 위생에 총력을 기울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픈 이후에도 시간·일 단위 방역 및 소독을 하는 등 고객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낙과 피해농가 돕기 선행 “고당도 ‘흠집 사과’ 사세요”

롯데마트, 밀양 사과 9만봉 매입 2.5kg 3봉 구입때 1봉당 3980원

사과 농가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연중 생산량의 대부분이 판매가 되었어야 할 2월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어 겉모양이 반듯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것.

이에 롯데마트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 지역의 사과 9만봉을 매입, 사과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섰다.

사과를 수확하는 시점인 10월부터 약 4개월 간 밀양시와 밀양농협과 함께 협력해 명절 기간 동안 좋은 등급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태풍 피해로 상처 입은 나머지 물량을 롯데마트가 사들여 책임지고 판매하게 된 것이다.

롯데마트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250톤의 물량을 전국 모든 점포에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밀양 농가 돕기 사과 (2.5kg/봉)’를 5980원에

선보이며, 2봉 구입하면 1봉 당 4980원, 3봉 구입하면 1봉 당 3980원에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밀양 사과는 겉 표면에 약간의 흠집이 있을 뿐, 품질 및 당도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경남 밀양 사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생육돼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은승 롯데마트 신선식품부장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지의 어려움에 롯데마트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TV쇼핑

## 자연분해 플라스틱 사용 친환경 포장재 본격도입

신세계TV쇼핑이 오는 3월부터 물, 이산화탄소, 토양무기질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단일 소재로 사용한 포장재를 본격 도입하고 친환경 경영을 강화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포장재는 총 3종으로 워터팩, 의류 비닐, 종이 테이프이다. 그중 워터팩 비닐과 의류 포장 비닐의 2종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단일 소재를 사용했다.

워터팩과 같은 보냉용 포장재에 단일 소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은 신세계TV쇼핑이 국내 최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100% 자연 분해 가능한 소재로 수분과 습도 등을 조절할 때 조건 아래에서는 180일 후 미생물을 통한 무기질화가 가능하다. 최적 조건에서는 100일 이내의 짧은 시간에도 분해 가능해,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다. /신원선 기자

## “봄을 부르는 별미국수’ 맛 보세요”

CJ푸드빌 제일제면소, 신제품 출시

CJ푸드빌 제일제면소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입맛을 돋우는 봄 신메뉴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메뉴 콘셉트는 ‘봄을 부르는 별미국수’다. ‘얼큰 달래 고기국수’는 얼큰한 사골 육수에 달콤 짭조름한 직화 고기구이를 듬뿍 올려 즐기는 별미국수다. 향긋한 제철 달래와 매콤한 청양고추가 감칠맛을 더해준다.

‘고기구이 마라비빔면’은 매콤하고 얼얼한 마라 소스와 불향 가득한 고기구이가 조화롭게 어울린다. 고명으로 올라간 수란을 터뜨려 마라 소스와 골고루 비비고 소면, 고기, 파를 돌돌 말아서 즐기기 좋다.

신메뉴 별미국수 2종은 배달이 가



제일제면소 봄 신메뉴 2종. /CJ푸드빌

능해 집, 회사 등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면과 육수, 소스를 별도로 포장해 불지 않고 꼬들꼬들한 면에 손쉽게 육수와 소스를 부어 먹으면 된다. 매장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맛과 품질로 배달된다. 면과 함께 선택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 결들임’ 메뉴 3종도 출시한다. ‘녹두전’은 녹두, 김치, 숙주, 돼지고기, 양파 등으로 만든 반죽으로 노릇하게 부쳤다. /김민지 기자

### 오리온

## ‘오!그레놀라바’ 출시

오리온은 간편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치’의 신제품 ‘오!그레놀라바 카카오&유산균볼’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그레놀라바 카카오&유산균볼은 통귀리, 호밀, 국산쌀 등 곡물에 깊은 풍미의 카카오 분말을 더한 제품으로, 유산



균볼을 첨가해 상큼한 맛까지 살렸다. ‘건강한 한 끼’ 콘셉트에 맞춰 든든한 포만감을 위한 견과류와 철분, 엽산, 비타민 E 등 9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을 더해 영양성분도 강화했다. /김민지 기자

한미약품-GC녹십자 MOU

“희귀질환 LSD 혁신 치료제 개발”

(리소좀 축적질환)

후보 탐색부터 상용화까지 협력 R&D 역량 더해 시너지 극대화 복용 편의성·경제적 부담 등 개선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내 상위 제약사가 혁신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26일 오후 5시 경기도 용인 GC녹십자 본사에서 ‘차세대 효소대체 희귀질환 치료제’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과 GC녹십자 대표이사 허은철 사장 등 양사의 주요 연구개발(R&D)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현재 한미약품이 보유한 물질특허를 기반으로 유전성 희귀질환의 일종인 LSD(리소좀 축적질환)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

현재 LSD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ERT 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양사



GC녹십자 허은철 사장(왼쪽)과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있다.

는 기존 1세대 치료제들의 안정성, 반감기, 복용 편의성, 경제적 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효소대체 혁신신약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물질, 인적자원 교류 및 연구협력을 통해 양사 R&D 역량의 시너지를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독보적 신약 개발 역량과 LSD 일종인 헌터증후군 치료제(헌터라제)를 보유하고 있는 GC녹십자만의 차별화된 개발 노하우가 이번 MOU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은 “GC녹십자는 희귀질환치료제 영역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있는 것은 물론,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한미약품의 축적된 R&D 능력과 GC녹십자의 차별화된 역량의 조화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허은철 사장은 “한국 제약산업의 새 R&D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한미약품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양사의 이번 공동 연구는 희귀질환 분야에서 차세대 치료제 개발과 획기적인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용제약, 재택·시차출근 시행

“임직원·고객 건강 최우선”

본부별로 본부장 재량에 따라 실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대용제약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27일부터 재택근무,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며 임직원의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앞서 대용제약은 대구경북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전체 영업과 마케팅본부에서는 재택근무를 전격 실시하고, 개발, 관리 등 본부별로 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재

택근무를 확대 시행한다.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을 위해 시차출근제도 시행한다. 대중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해 임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펴본 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용제약은 직원이 일할 때는 자율적으로 몰입하고, 쉬 때는 제대로 쉬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휘아’, 론칭 5개월 만에 600% 폭풍 성장

(위생습관 브랜드)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위생습관 브랜드 휘아(WHIA)가 론칭 5개월 만에 매출 600%의 ‘폭풍 성장’을 기록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해 9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이 새롭게 선보인 휘아는 사람들의 청결한 일상생활을 돕고자 기획된 신규 브랜드로, 강력한 살균력을 바탕으로 한 위생용품, 생활용품을 직접 연구개발해 출시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휘아는 출시되자마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단일 브랜드 기

준 매출 목표를 200억 원대로 잡는 등 순항 세를 예고하고 있다.

휘아가 론칭 후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휘아의 휴대용 손소독제 ‘손당기전’에 클린미스트는 국내 신종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주문이 폭주하며 판매율이 전월 대비 140배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JW신약, 알리트리티노인 성분 ‘유니톡’ 출시

(손 습진 치료제)

염증 억제·면역기능 조절

JW신약이 만성 중증 손 습진 환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신약은 손 습진 치료제 ‘유니톡연질캡슐(이하 유니톡)’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톡’은 알리트리티노인을 주성분으로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 습진에 적응증

을 갖고 있다. 또 유니톡은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1일 1회 1캡슐의 경구 투여로 간편한 복용법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저렴한 약가로 환자들의 약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JW신약 관계자는 “유니톡은 국소 스테로이드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만성 손 습진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유니톡연질캡슐’ /JW신약

로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니톡’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로에베, ‘크라프트 프라이즈’ 후보자 발표

한국인 작가 6명 최종명단 포함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공식 수입하는 스페인 가죽 브랜드 로에베(LOEWE)가 제4회 ‘2020 크라프트 프라이즈’의 최종 후보자 리스트를 27일 발표했다. 30명의 최종 후보자 작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장식미술관에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시한다. 특히, 한국인 작가가 6명이 함께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크라프트 프라이즈’는 현대 장인 정신의 독창성, 탁월함, 예술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 로에베 재단에 의해 설립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로에베

크라프트 프라이즈’는 작가가 가진 전통적인 테크닉을 응용한 새로운 해석,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표현 방식 그리고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련도 등이 표현된 작품들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특히,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들의 유기적 구조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속성과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아졌다. 최종 후보자는, 각각 다른 6개 대륙과 18개 국가의 작가들로, 최근 졸업한 작가부터 이미 저명한 아티스트까지 다양하다. 한국인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이들은 김혜정, 이지용, 김계욱, 강석근, 박성열, 조성호까지 총 6명이다.

/조효정 기자

“프랑스 No.1 앰플로 두피·모발 관리하세요”

르네휘테르 트리파직 샴푸 출시

프랑스 프리미엄 두피 & 헤어 케어 브랜드 르네휘테르에서 어느 각도에서도 당당한 헤어를 완성하는 트리파직 샴푸(사진)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르네휘테르의 트리파직 샴푸는 프랑스 No.1 앰플의 노하우가 담긴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무려 7세대 리뉴얼을 거친 트리파직 앰플의 두피와 모발에 특화된 핵심 성분 ATP와 브라질 인삼이라고 불리는 파피아 성분을 공통 함유하고 있어 이상적인 두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조효정 기자



빨라쵸 ‘G.FASSI’ 한화 갤러리아 입성

빨라쵸는 ‘G.FASSI(지파시)’가 오는 3월 2일 수원 광고에 문을 여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파시는 이탈리아 젤라또의 효시인 빨라쵸 창업자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정통 젤라또에 다양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다. 백화점 등 지역 핵심 상권 위주로 출점 하고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내 4대 메이저 백화점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

광고 갤러리아 지파시 매장 규모는 20평이며, 백화점 주요 고객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3층 고급 여성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운영된다.

빨다방 100% 국내산 ‘딸기 신메뉴’ 출시

더본코리아 빨다방은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해 상큼한 풍미의 ‘딸기 신메뉴(사진)’ 3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100% 국내산 딸기를 사용해 딸기 본연의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큰 특징이다.

‘딸기 펄라떼’는 딸기라떼에 딸기맛 타피오카 펄(이하 딸기펄)을 올려낸 메뉴로, 입안 가득 퍼지는 과일의 향긋함과 함께 쫄깃한 펄의 식감을 만끽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 NH투자증권, 디지털 업무혁신 구축 나선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전방위적 MOU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AI 기술 확보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혁신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투자증권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및 디지털 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place)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및 텍스트 분석(S TT·TA)과 같은 AI 기반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우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개발중인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NH투자증권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디지털화한다. 임직원 간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돕고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한 확장 기능을 개발한다.



NH투자증권은 27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혁신 및 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왼쪽)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업 대표이사(오른쪽)와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AI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에서도 협업해 디지털 업무 혁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우수한 플

랫폼 및 콘텐츠를 보유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전방위적인 업무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며 "NH투자증권의 금융 지식과 노하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재계, 피해 극복 ‘통큰 기부’ 행렬

### 포스코·현대중공업·CJ그룹 확산방지 위해 성금 기탁 대구·경북에 생필품 지원

재계가 코로나19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7일 코로나19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코로나19 최대의 피해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에 본사 및 다수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호기금은 포스코 40억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1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출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의료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방역 및 예방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1%나눔재단을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에 본사를 둔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지주 로봇사업부문)도 대구·경북지역에 써달라며 2억원을 이 협회에 전달했다. 그룹 차원에서는 총 12억원을 내놓은 셈이다.

CJ그룹도 신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다. CJ그룹은 이와 별개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격리 환자·취약계층 식사를 위해 햇반컵밥 등 가정간편식 1만5000개와 마스크·항균물티슈 1만개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은 다음달 한 달간 대구·경북 주민에게 개인 택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호성그룹도 27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과 의료용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성은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19 구호현장에 의료용 장갑 5만켤과 손소독제 3000개 등 의료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두산연강재단 초·중·고·대학생에 장학금 20억원 지원

환경 어려운 학생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올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6일에는 이 가운데 먼저 대학생 158명에게 10억 2300만원을 전달했다.

두산연강재단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8년에 설립됐으며 설립년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하고 있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가고, 장차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8일 (음 2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자녀 돌보기. **48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 **60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72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84년생** 일이 순조롭다.
- 37년생** 옛날에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용. **49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6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73년생** 오후에 큰일이 계야. **85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 38년생**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50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나야 할 터. **62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74년생** 명쾌하고 신뜻한 하루. **86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 39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63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75년생** 붉은 색이 행운을. **87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 40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52년생** 배우자의 의견 존중. **64년생** 차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76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88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 41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65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77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89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할.
- 42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54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6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8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는 일부터 해 나가보라. **90년생** 분수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 43년생** 의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55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67년생**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79년생**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91년생**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 44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56년생**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68년생**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80년생** 참외밭을 갈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92년생** 시기성조라 인내심을.
- 45년생** 재산 나눠주고 부부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57년생** 모서어 소란스럽다. **69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1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3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 46년생** 자기 나도 피곤하니 좀 쉬도록 할 것. **58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오도록. **70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82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94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 47년생** 의지할 데 없는 노년 신세. **59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71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83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심삼 은덕. **95년생** 공부하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 김상희의四季

### 조울증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정신적 특질 중의 하나가 좋고 싫어함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전통적 여인의 미덕은 '참음'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화병'은 대한민국 여인네들의 거의 집단 정신병리학적 증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정확지는 않겠으나 정신분석학에서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는 증세는 한국의 고유한 집단 감정 병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원인이야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어찌 보면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부재와 혼란 남과의 비교나 소용 부재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본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과 들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느 순간 한없이 맥이 빠지거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반짝하며 계속 떠들며 포부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다 다시 눈을 초점을 잃은 것처럼 멍해지며 원망을 내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일종의 호르몬 작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마음이 우울함을 향하는 순간 바로 정신이 물질에 작용한다.

감정 부분을 관장하는 부신피질이나 전두엽에 신경 자극을 주어 관련 호르몬의 분비에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기실 에너지의 작용 즉 오행의 상호 관계와 대운과 세운 그달의 운기 등의 파장 형 총과 해 합을 이루면서 주고받는 영향 속에 발현되는 에너지 기운의 결과물 또는 작용 과정이기도 하다.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반짝하거나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 기질이니 수시로 밝음을 가까이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습관만 가져도 치유될 수 있는 마음 현상이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투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문제풀이:** 3X3 스투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투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3	1	2	9	4	9
2	9	4	9	8	1
4	9	1	8	2	9
1	8	9	2	9	4
9	4	8	1	9	2
9	2	9	4	1	8

3	2	6	9	9	2	8	8	1
2	9	8	2	1	8	4	9	6
9	1	8	8	4	6	2	9	2
1	8	2	6	9	9	2	8	4
9	8	2	8	9	1	6	2	4
6	4	9	2	8	2	9	1	8
8	9	4	1	2	8	2	6	9
2	6	1	9	8	9	8	4	2
8	2	9	6	2	4	1	8	9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8호

# 와인의 역사를 바꾼 질병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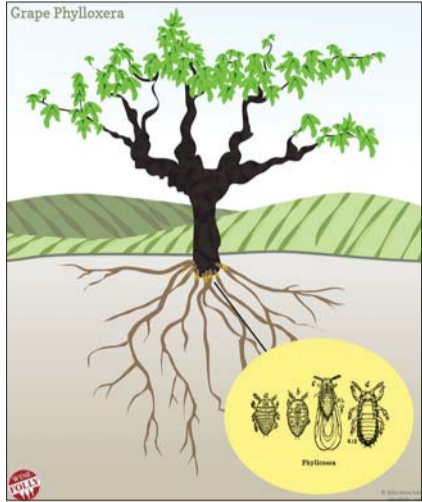
## <62> 필록세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도나무도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초토화시킨 해충에 시달린 적이 있다. 와인은 물론 주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버린 필록세라다.

필록세라는 진드기의 일종이다.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발견되던 해충이다. 뿌리에 기생해 수액을 빨아 먹으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잎까지 말라비틀어 죽여버린다. 수백 개의 알을 낳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한 번 생겼다 하면 포도밭 전체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포도뿌리에서 시작에 결국에는 나무 전체를 죽이지만 미국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렌기간 필록세라와 싸워오면서 포도나무 자체적으로 이미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포도나무 묘목이 영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뿌리에 기생하던 필록세라도 같이 유럽으로 건너왔다. 필록세라에 대한 내성없이 무방비 상태였던 유럽의 포도나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필록세라는 1863년 영국을 시작으로 1869년 프랑스 보르도, 1875년 이탈리아, 1878년



/와인폴리

스페인에서 창궐했다. 신이 내린 저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유럽 포도밭의 3분의 1이 황폐화했다.

해결책이 나온 것은 필록세라 피해가 생긴 지 무려 20여년이나 지난 뒤였다. 필록세라에 저항력이 있는 미국 종 포도 뿌리에 유럽 종의 포도 가지를 접붙이는 방식이었다.

20여년에 걸친 필록세라 재앙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먼저 와인 이외 다른 주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럽의 와인 생산량이 폭 떨어지면서 이전에는 하층민이나 먹던 맥주를 상류층도 마시기 시작했다. 와인을 증류시켜 만드는 코냑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스코틀랜드 산 위스키가 대용으로 떠올랐다.

와인시장의 구도도 달라졌다. 필록세라 피해가 한 두해로 끝나지 않고 10년, 20년에 달하자 와인메이커

들이 유럽시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포도나무가 아직 건재한 호주나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 등으로 이동하면서 신세계의 와인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칠레는 필록세라로부터 안전한 몇 안되는 나라다. 칠레가 프랑스로부터 포도나무를 들여온 것은 필록세라가 창궐하기 전인 1860년대 초로 지금도 접붙이기를 하지 않은 순수 품종을 유지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프랑스가 와인의 생산과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됐다. 필록세라로 포도밭이 죄다 망가지면서 와인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자 가짜 와인이 판을 치게 된 탓이다.

건포도로 가짜 와인을 만드는 것은 물론 원산지 개념은 무시되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와인을 프랑스 와인에 섞어팔기도 했다. 심지어 양을 늘리기 위해 와인에 물을 타거나 포도가 아닌 다른 과일즙을 섞어 팔기도 했다. 가짜 와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프랑스는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와인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지금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범국가적 시스템 AOC(원산지 호칭 통제)다. 산지 명칭을 쓸 수 있는 경계선을 명확히 했고, 포도품종부터 재배법, 양조까지 세부적인 기준도 국가가 정했다. 필록세라로 인한 고통도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와인의 품질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된 셈이다.

smahn1@metroseoul.co.kr



'식물 호르몬 에틸렌 검출센서'를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스마트 파밍 모식도. /고려대

# 복숭아·블루베리 숙성 정도 에틸렌 측정으로 판별한다

## 고려대, 에틸렌가스 검출센서 개발

털 익은 바나나를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나나 아래에 사과, 키위, 다른 바나나 등을 두면 된다. 아래에 위치한 과일에서 배출되는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바나나의 숙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감자를 사과와 같이 비닐에 넣어 보관하면 감자에서 썩어 나오는 것이 억제되는 것도, 사과에서 배출되는 에틸렌에 의한 효과다. 이외에도 에틸렌은 씨앗의 발아, 꽃의 개화, 식물의 성장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현재까지 과일 숙성도 주관적 판단 에틸렌농도 측정 과학적 방법 찾아

## 스마트 파밍 기술발전 가속화 기대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게재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신소재 공학부 이종훈 교수 연구팀이 산화물 반도체 가스센서 감응막 상단에 나노 두께의 산화물 촉매층을 코팅하는 이중층 구조를 도입해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 가스를 고선택성 고감도로 검출하는 새로운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저분자량의 에틸렌 가스는 높은 결합에너지로 인해 산화물 반도체형 가스센서로 선택적 검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산화주석(SnO2) 기반 산화물 반도체형 가스센서 감응막에 산화크롬(Cr2O3) 나노 촉매층을 코팅하면, 에틸렌 이외의 방해가스는 반응성이 낮은 이산화탄소(CO2), 수증기(H2O)로 산화되어 에틸렌을 고선택성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에서 개발된 센서는 육류, 해산물, 생선 등의 보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

아,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가스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스들에 대해서도 우수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위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과일 숙성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호하는 과일 숙성 정도가 다른데, 현재까지 과일의 숙성도는 껍질의 색이나 촉감 등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왔다. 바나나, 토마토, 애플망고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색이 바뀌는 과일의 경우 숙성 정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복숭아, 키위, 블루베리의 경우 색만으로 숙성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도의 숙성상태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일에서 발생하는 미량의 에틸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바나나, 애플망고, 복숭아, 키위, 블루베리 등 5가지 과일에서 배출되는 에틸렌 농도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센서로 15일간 측정된 결과, 과일의 숙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무선 가스센서 모듈을 이용해 감지 신호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른 장치에 보내 과일의 숙성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종훈 교수는 "본 연구는 대표적인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을 초소형화가 용이한 산화물 반도체형 가스센서로 고선택적으로 검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또 다양한 식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식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농도를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링할 경우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기술 발전을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미래육성재단 과제 지원을 받아 1제저자인 정성용 박사과정(고려대 신소재) 주도로 진행됐고, 강윤찬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 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2월 24일자에 게재됐다.

/한용수 기자 hys@



고려대 정성용 박사과정

강윤찬 교수

이종훈 교수

# NBA, 신상 '멀티백팩' 4주만에 초도물량 완판

한세엠케이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는 스타일리시함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2020 S/S 시즌 신상 백팩이 출시 4주 만에 완판됐다고 27일 밝혔다.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돼 1차 리오더를 진행 중인 '멀티백팩(사진)'은 NBA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스트리트 무드를 살린 디자인에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트북, 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수납공간을 비롯해 가방 외부에도 넉넉하고 편리한 포켓을 구성해 수납력을 강화했다.

가방 사이드와 전면에 배치한 메쉬 소재의 포켓으로 수납이 쉬우며 인형이나 소품 등을 넣어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가방 전면의 스트링 포인트로 트렌디함까지 더했으며, 함께 증명되는 탈부착 가능한 멀티포켓은 무선 이어폰 또는 작은 소품들을 수납하기에 제격이다.

색상은 블랙, 베이지 2종으로 기획됐으며, 가격은 12만9000원에 출시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데렉 램(재킷+블라우스+팬츠+스커트)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패션 브랜드 '데렉 램' 론칭

## 2030세대 공략... 내달 1일 방송

롯데홈쇼핑은 내달 1일 오후 10시 35분 미국 패션을 이끌어갈 차세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데렉 램'의 패션 브랜드를 단독 론칭한다.

중장년층 고객 비중이 높은 홈쇼핑 패션의 영역을 넓혀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이번 시즌 가장 심혈을 기울인 브랜드가 '데렉 램'이다.

뉴욕의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인 파슨스 출신 디자이너 '데렉 램'이 2003년 론칭한 브랜드로 자연스럽고 간결한 디자인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특히, 전 미국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2014년 중국 방문 당시 '데렉 램'의 원피스를 착용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롯데홈쇼핑은 '데렉 램'을 시작으로 '질바이질스튜어트', '블랙마틴잇빙' 등 2030세대들로부터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패션 브랜드를 연이어 선보이며 젊은 고객층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데렉 램'의 봄 신상품은 정장 세트, 트렌치 코트, 블라우스, 원피스 등 총 4종이다. 내달 1일 론칭 방송에서는 대표 상품인 재킷, 블라우스, 팬츠, 스커트 구성의 정장 세트와 실크 블라우스를 선보인다. 정장 세트는 홈쇼핑 최초로 미국 이스트만(Eastman)사의 나이아(NAIA) 원사로 재직하 아세테이트 100% 원단을 사용했다. 나무 추출물로 만든 자연 유래 섬유인 나이아 원사는 친환경 소재인 만큼 원가는 비싸지만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경쟁의 금융에서 상생의 금융으로  
오늘의 방식을 넘어 내일의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성장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기쁨을 넘어  
모두의 기쁨을 키우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 광주·전남 신천지 3.6만명 전수조사 진행

# 1400명 동원 전화문진... 통화 안되면 경찰과 소재 파악

신도 대상 직업·건강상태 점검  
본인 외 가족 등 증상자 여부 확인  
“방문조사해야” 전화 한계 지적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확진 환자 접촉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파악하고자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전국 신도 명단을 토대로 광주시도 지역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9시 본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1400여명을 동원해 전화 문진을 시작했다.

통보된 명단은 2만2880명으로 시가 애초 파악한 2만6715명보다 약 4000명 적다.

전남도도 1만3597명의 도내 신천지



27일 오전 광주시 공무원들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토대로 증상 유무 등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인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시군별 교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순천이 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목포가 각각 3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지자체 공무원 600명이 동원돼 1인당 20~30명의 교인을 맡아 전화로 본인 확인과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인적 사항 등 본인 확인

을 한 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근무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16일 전후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광주 확진자가 거쳐 간 남구 주월동·월산동 교육 센터에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질문 뒤에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통

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곧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게 한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중 통화가 연결된 대상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결과 확인과 함께 2차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소극적 전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 수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적고 교육생이 명단에서 빠진 점도 전수 조사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있다.

확인 대상자들이 수신하지 않는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전화에서 위험 지역 방문, 확진자 접촉 사실, 증상 발현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확인된 대상만이라도 방문 조사를 통해 가족까지 발열 등 증상 측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기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증상자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려고 신천지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전남=양수녕 ts7080@metroseoul.co.kr

## 광양시, 내달 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조정 “장성을 하나로”... ‘청운지하차도’ 조기 착수

광양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돼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노선 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이 가능한 일부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태인동 방면에 대해 종전 44회에서 13회로 감회된 88번 노선을 13회에서 18회로 5회 증회한다.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 1001번은 길호 상가 내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12번 노선은 옥곡면 장동마을을 경유해 운행한다. 35-1번 노선은 다압면 동동마을을 1일 2회 경유한다.

또한, 옥곡면 백암 마을 32번 노선은 3회에서 4회로 1회 증회하고, 11-2번 노선은 중마 터미널에서 22:00~22:40에 3회 증회 운행해 중마동에서 광양읍 방향의 막차 시간을 늦췄다.

아울러 광양읍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87번의 2회차, 3회차 노선은 창덕 A 단지를 경유하게 된다.

옥곡에서 진월로 운행하는 34번 노선은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폐지하고 진월면 일부 구덕, 신덕, 신기, 구동 4개 마을은 100원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부 조정된 개편 내용을 읍면동과 SNS, 버스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생활정보(교통 정보)에 게시하고 버스승강장에도 운행 노선도를 제작 부착해 시민 홍보에 나선다.

정하중 교통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개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노선 개편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편을 겪고 있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 조정이 가능한 일부 지역의 노선을 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jia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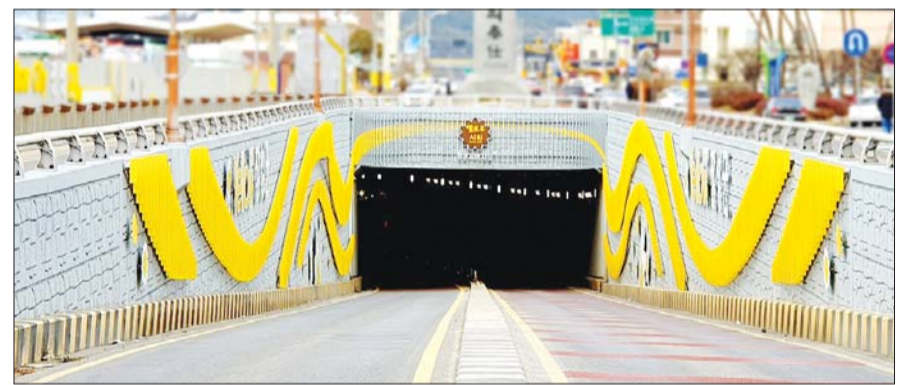
### 장성군 국토부-철도시설공단 협의 ‘철도하부 통과구간 확장사업’ 선정

호남고속철도 개설 이후 동·서부로 나뉜 전남 장성군을 하나로 이어 줄 ‘청운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협의 결과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철도하부 통과 구간 확장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오는 3월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철도통과 구간 국비 지원율과 사업추진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성군은 도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호남선철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장성역 지하차도’를 개설했다. 하지만 장성 서부권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부 지역을 잇는 추가적



장성역 지하차도.

/장성군

인 교통시설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여기에 노후화 된 기존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오자 시설 보강과 대체 지하차도 개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숙원을 해소해 줄 새로운 ‘청운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장성읍 서부지구는 복합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예술회관과 군립중앙도서관, 홍길동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 연

말 준공 예정인 장성공설운동장도 원활하게 연결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호남선 철도는 장성의 도시 확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청운지하차도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효과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상주시, ‘꽃 생활문화 운동’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화훼농가 도움

상주시가 ‘꽃 생활문화 운동’에 나선다.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다소 어두운 시청과 읍면동·사업소의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도 도우려는 것이다.

시는 3월부터 각 부서가 농업정책과로 꽃다발을 신청하면 월 2회 화훼 농가가 직접 지정 사무실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꽃다발 하나에 1만원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꽃이 있는 가정의 날’ 이벤트를 실시해 공무원

들이 저렴한 가격(8000원)에 꽃다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 화훼농가는 총 38호로(13.4ha) 프리지아, 백합, 라시안셔스, 스토크, 글라디올러스 등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대부분 화훼공판장으로 유통한다. 또한 일부 화분에 심어 재배하는 선인장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 총 62t(9억5000만원)을 수출하기도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개인의 정서 안정과 밝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 보성군 3개 기업 농공단지 입주

투자규모 126억·지역 일자리 창출

보성군은 27일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로 보성군은 관내 농공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친환경 생분해 필름을 생산하는 ㈜진성 바이오를 비롯해 3개 제조기업이 조성농공단지에 동지를 튼다. 투자 규모는 약 126억 원 규모이며, 40여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군은 민선 7기 들어 8년 넘게 미분양으로 있었던 조성 농공단지에 350억 원 가까운 투자를 이끌어냈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6 | 해질 / 18:24

2월 28일 (금)  
음력 : 2월 5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예측치): 연천 0/6, 동두천 1/7, 가평 -2/5, 파주 -1/6, 서울 3/7, 양평 0/6, 용인 4/6, 수원 4/6, 평택 2/7, 인천 4/7, 백령도 3/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취소... “오랜만에 평온한 주말”

### 전광훈 “국민걱정 덜기위해 중단” 서울시, 감염병관리법 따라 조치 종로경찰서에 참가자 처벌 의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전격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대로 일대에 마련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4개단체 7개 천막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어 철거반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범투본은 22~23일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시는 24일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전 목사는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고,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집회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범투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코

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A씨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신천지처럼 공공의 적으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범투본을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감염 확산을 이유로 범투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서 백기를 던진 것이 아닐까”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자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범투본 등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범투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민이 범투본의 집회로 인해 감염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과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집회가 열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고 말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이것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들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공사장 소음 600건 넘어... 작년 1.5배 증가

### 서울시, 신청건수의 96% 공사장 5년간 피해보상액 배상금 10억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건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 전체 신청건수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약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전체 접수된 분쟁건수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

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접수건수가 늘어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 11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

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5개월이다. 법정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 이는 심사관의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내 종교시설 방역 강화에 12.5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원은 25개 자치구별 5000만원씩 교부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IoT기술 접목... ‘QR형 뉴따릉이’ 도입

### 서울시, 통신망 활용 위치 추적 유지보수비용, 고장 적어 장점

서울시가 3월부터 QR코드를 한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QR형 뉴따릉이’를 선보인다. 초·중·고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도 생긴다.

서울시는 ‘QR형 뉴따릉이’를 내달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500대에 시범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5000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는 QR형으로 보급된다. 시는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100% 교체할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돼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따릉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돼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반납은 단말기의 잠금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비용과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QR형 뉴따릉이에는 LTE(통신망)를 활용한 실시간 위



QR형 뉴따릉이

추적 기능도 탑재돼 있다. 따릉이 무단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초·중·고생들도 학교, 학원 등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 따릉이’를 시범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민 5명 중 1명 “119 도움받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매년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접수한 119 신고가 650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 건수는 2017년 228만16건, 2018년 220만9342건, 지난해 205만6736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신고 건수를 보면 구급신고가 157만591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생활안전은 19만6868건, 구조는 12만 8557건, 화재는 6만7271건, 기타는 457만7480건 등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된 건수는 2017년 27만463건, 2018년 27만3423건, 작년 27만7124건으로 확인됐다. 병원·약국 안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응급 처치지(35.3%), 질병상담(16.3%), 의료지도(9.5%) 순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은 2017년 1151건 처리했지만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 모습

이후 점차 늘어 2018년 1215건, 지난해 1542건을 기록했다. 처리 유형별로는 질병이 1902건, 심정지 1544건, 중증 외상 462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8227건으로 평균 6000건 이상으로 집계돼 일평균 16.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5978건이었던 서울시 화재사고는 2018년 6368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다시 5881건으로 감소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지가 773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산업] 현대모비스 '車 앞 유리'에 주행정보' 윈드실드HUD시장에 출사표 08



Life

[라이프] 갤러리아 광고 내달 2일 오픈 경기권 최고 백화점



# 갈증 '씩' 속은 '편안'... 탄산 대신 하늘보리 마셔보리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 웅진식품 '하늘보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물 이외의 마실 거리 중 꾸준히 음용이 가능한 음료는 단연 '보리차'다. 이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 주던 보리차를 마셨다면, 최근에는 쉽게 구입해서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집에서만 마셔야 했던 보리차를 집 밖에서도 마실 수 있게 최초로 상품화한 제품이 바로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다. 하늘보리는 구수하고 시원한 보리차의 그맛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이후 20년째 꾸준히 보리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 ◆하늘보리, 보리차 음료의 시작

'보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곡물이다. 특히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증거 되는 바와 같이 소화불량, 식욕부진, 갈증해소 등에 좋은 곡물로서 한국인들에게는 쌀 다음으로 주요한 주식이었으며, 가정에서 끓여 먹던 보리차의 원료이기도 하다.

웅진식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효능을 파악하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리차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2000년 4월 국내 최초의 보리차 음료인 '하늘보리'를 개발했다. 출시 당시만해도 음료 시장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생수를 사마시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녹차나 혼합곡물차와 함께 집에서 끓여 마시던 보리차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밖에서 사 마시는 것이 보편화됐다. 이후 하늘보리는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꾸준히 음용하는 차 음료로 자리 잡았다.

#### ◆보리차 음료 부동의 1위

하늘보리는 100%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곡물만을 사용해 만든 대한민국 대표 보리차 음료로, 무당, 무카페인, 무칼로리의 웰빙 음료로 사랑받으면서 출시 이후 보리차 음료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보리차 음료 인기에 따라 롯데, 동서, 해태, CJ 등 대기업 경쟁 브랜드가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보리는 보리차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하고 청량감 있게 갈증을 해소시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20년간 굳건히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2015년에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어린이 보리차 음료 '유기농 하늘보리'도 선보이며 어린이 차 음료 시장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유기농 하늘보리는 보리와 현미, 옥수수 등 국내산 유기농 곡물만을 사용해 순하게 우려냈으며, 첨가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 먹거리에 민감한 부모들



가정서 끓여 먹던 대표 곡물 보리차 언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 개발

어린이 위한 '유기농 하늘보리' 대용량 제품 출시 등 라인업 확장

젊은층 타겟으로 감성 마케팅 선택 톱스타 모델 기용·아이덴티티 전달

의 걱정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친구 캐릭터 '코코몽'을 그려 넣어 어린이의 선호도도 높였다.

최근에는 500ml 페트 제품 외에도 가정용으로 마실 수 있는 1.5L의 대용량 제품의 판매량도 덩달아 늘고 있어, 집 안팎에서 마실 수 있는 가장 편한 음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리차 음료 시장은 2018년 약 500억원대로 성장 중이다. 하늘보리도 보리차의 성장세에 따라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하늘보리 매출은 2017년 대비 14.3% 가량 증가했으며, 작년은 21% 가량 급증했다. 매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보리차 음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 ◆ 2030 감성 공략하는 하늘보리

하늘보리 성장의 바탕에는 차음료의 주타겟층인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20대 타겟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

하늘보리는 지난 2015

년부터 매년 하늘보리의 제품 라벨에 열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은 '열두보리'를 선보이며 매해 새로운 감성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작년 2019 열두보리에는 인기 웹툰 작가 '빨강머리'와의 협업을 통해 12가지의 웹툰을 담아냈다. '포기도 용기가 필요해', '노는 건 시간 내서 하는 거야' 등 현실에서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 소비자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부터는 제품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무늘보를 모티브로한 캐릭터 '하늘보'를 모델로 기용했다. 언제 어디서나 주눅 들지 않고 일상 속 여유와 힐링을 전하는 하늘보의 모습과 '열 해소'라는 보리 본연의 속성을 매칭시킨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늘보 특유의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대로 구현한 열쇠고리 인형 패키지를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 ◆ 미디어 속 하늘보리

하늘보리는 당대 톱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며 다양한 TV-CF를 제작, 화제를 이끌기도 했다. 냉성 곡물로서 열을 내리고 갈증을 풀어주는 보리의 차가운 성질을 광고 속에 잘 녹여냈으며 소비자들에게 하늘보리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심어줄 수 있었다.

출시 당시 배우 김민희를 시작으로, 당대 톱스타인 현빈, 이승기, 공유, 오연서 등을 차례로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2015년에는 배우 손호준을 모델로 일



역대 하늘보리 광고모델 (위부터) 김민희, 현빈, 이승기, 공유. /웅진식품

상 생활에서 열 받는 상황을 하늘보리가 식혀 준다는 내용을 위트 있게 그려내 주타겟인 2030 소비자층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2017년 여름철, 캐릭터 '하늘보'를 주인공 삼아 새롭게 선보인 광고 캠페인은 온라인 상에서 널리 바이럴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안전 에스컬레이터 사용과 승하차 상황에서 안전한 이용을 권하는 캠페인에서 느긋하고 낙천적인 하늘보의 모습이 위트 넘치게 담겨, '열 내리고 살자'는 하늘보의 여유로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하늘보리는 광고 외에도 젊은 소비자층과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PPL(Product Placement) 활동도 전개해오고 있다. 2011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을 시작으로, KBS2 '해피투게더' 그리고 음악 전문 방송 Mnet의 '쇼미더머니' 등 인기 프로그램들의 제작 지원에 참여하며,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로 대중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